

칠갑산

대문산

충청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http://council.chungnam.go.kr>

덕산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전 낙 운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방안 연구모임 대표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63.7%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네번째로 산림 비율이 높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중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 도립,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리·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연공원을 보전하는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 우수한 관광자원인 자연공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충남도내 3개 도립공원(대둔산, 덕산, 칠갑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수차례 회의와 선진지 자연공원 현장방문을 하였고 국내외 우수 공원개발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도립공원 관광자원을 활용한 민자유치 방안 등에 대한 조사로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모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어진 주옥같은 자료를 모아 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회 활동을 통해 제언된 내용이 충남 도립공원의 보전과 활성화 정책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바쁜시간에도 연구모임을 위해 힘써주신 동료의원님과 연구모임회원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회원현황



사 진	성 명	구 분	소 속
	전 낙 운	대표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정 옥 식	간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홍 열	회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 용 일	회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 문 규	회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 용 필	회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 복 만	회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홍 재 표	회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송 덕 빈	회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 석 곤	회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지 진 호	회원	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성 인 경	회원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박 충 규	회원	논산계룡시 산림조합장
	길 호 덕	회원	금산군 산림조합장
	명 노 영	회원	청양군 산림조합장
	이 상 현	회원	예산군 산림조합장

Ⅰ 연구모임 등록 1

Ⅱ 연구모임 활동 경과 11

1. 제1차 도립공원 연구모임 회의 13
2. 제2차 도립공원 연구모임 회의 31
3. 도립공원 연구모임 현장방문 55
4. 제3차 도립공원 연구모임 회의 77

Ⅲ 전략구상 연구보고 85

1. 연구의 개요 91
2. 공원과 지역사회 99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례 117
4. 현장조사 및 결과 143
5. 충남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전략 구상 153



Part I

연구모임 등록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모 입 명 :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전낙운
3. 연구목적 :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도립공원의 현명한
이용 전략 모색
4. 구 성 원 : 16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 표	전낙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정옥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용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송덕빈	교육위원회 위원		
	김석곤	교육위원회 위원		
	지진호	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성인경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박충규	논산계룡시 산림조합장		
	길호덕	금산군 산림조합장		
	명노영	청양군 산림조합장		
	이상현	예산군 산림조합장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5년 4월 일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 전 낙 운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 표 자		전 낙 운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지역발전을 위한 도립공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 모색
	목 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립공원의 활성화 방안 및 현명한 이용 전략 모색
연구활동기간		2015. 5 ~ 2015. 11(7개월)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5,000천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4월 일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 전 낙 운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2015. 4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사업계획

- 충남의 우수한 자연자원인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이를 위해 도립공원의 지속성과 건강성 확보 및 현명한 이용 방안 전략 모색 필요

1 추진방향

- 도립공원의 우수 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지속성 확보
- 도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한 건강성 확보
- 현명한 이용 전략을 통한 생태관광 시장의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립공원의 보전 및 이용 전략
- 사업기간 : 2015년 5월 ~ 2015년 11월 (7개월)
- 사업내용
 - 자원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
 - 연구보고서 발간, 배포
- 사업비 : 5,000천원

3 세부사업 계획

■ 도립공원 자원조사

- 목적
 - 도립공원의 자원 발굴
- 사업내용
 -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발굴 및 현황파악을 위한 자원조사
 - 도립공원의 자원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문헌조사 병행)
 - 연구·조사비용 지원 등

■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목적
 - 자원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전략 모색
- 사업내용
 - 공원의 지속성, 건강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 모색
 - 자원의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 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국내외 사례 조사

- 목적
 - 공원의 현명한 이용 방안 모색
- 사업내용
 - 공원 이용 및 지역 발전의 국내외의 사례 조사
 - 사례별 발전 전략 및 방안 검토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목적
 - 연구 결과의 공유 및 정책 제언
- 사업내용
 - 연구결과 및 워크숍, 토론회 결과 수록, 종합보고서 발간

4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2015년 3~4월 중)
- 연구모임 1차 정기모임(2015년 5월 중)
- 조사·연구 실시(2015년 5~7월 중)
- 현장조사 실시(2015년 5~7월 중)
- 연구모임 2차 정기모임 및 워크숍 개최(2015년 9월 중)
- 보고서 발간, 배포(2015년 11월 중)

5 기대효과

- 우수한 자연자원인 도립공원의 보전을 통한 지역민의 자연 복지 증진
- 경쟁력 있는 자연자원의 활용(생태관광 운영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5,000	
연구모임 활동비	1,000	○ 연구모임 발족 및 간담회 - 250,000원×4회 = 1,000,000원
현장조사 및 사례조사	2,000	○ 현장조사 - 500,000원×3회 = 1,500,000원 ○ 사례조사 및 자료 검토 - 500,000원×1회 = 500,000원
워크숍 및 토론회	1,000	○ 워크숍 및 토론회 - 500,000원×2회 = 1,000,000원
보고서 인쇄	1,000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1,000,000원×1회 = 1,000,000원



연구모임 활동 경과



1

제1차 도립공원 연구모임 회의



2015. 5.

제1차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회의자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1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사업계획

◇ 도립공원의 자원보전을 통한 건강성 및 지속성 확보 방안과 이를 기반으로 한 조화로운 이용 전략을 모색

1. 연구필요성

- 충남의 경우 다양하고 우수한 자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도립공원의 경우, 지역의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
- 충남의 우수한 자연자원인 도립공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무분별한 자원의 활용의 경우 오히려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므로 도립공원의 조화로운 이용에 관한 전략적 모색이 필요함

2. 회원현황 : 총16명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대표	전낙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010-5441-1237
연구간사	정옥식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010-9435-4153
연구회원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010-4410-3390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010-5425-0259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010-6421-4488
	김용필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010-3379-0162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010-4428-7711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010-2014-7800
	김석곤	교육위원회 위원	010-5401-6682
	송덕빈	교육위원회 위원	010-5425-3386
	지진호	건양대학교 교수	010-3411-8235
	성인경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010-9944-5393
	박충규	논산시산림조합장	010-5425-3511
	길호덕	금산군산림조합장	010-8985-6464
	명노영	청양군산림조합장	010-5439-8313
	이상현	예산군산림조합장	010-3256-5581

3. 연구내용

☐ 도립공원 현황조사

○ 목적

- 각 도립공원의 자원 발굴
- 도립공원 운영 실태 및 현황 파악

○ 사업내용

-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발굴 및 현황파악
- 도립공원의 자원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문헌조사 병행)
- 도립공원 운영 실태조사 및 타 시도 비교 분석

☐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목적

- 자원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전략 모색
- 공원별 특성을 활용한 이용전략 모색

○ 사업내용

- 공원별 이용전략 모색
- 공원의 지속성, 건강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 모색
- 자원의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 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국내외 사례 조사

○ 목적

- 공원의 현명한 이용 방안 모색

○ 사업내용

- 공원 이용 및 지역 발전의 국내외의 사례 조사
- 사례별 발전 전략 및 방안 검토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목적 : 연구 결과의 공유 및 정책 제언
- 사업내용 : 연구결과 및 워크샵, 토론회 결과 수록, 종합보고서 발간

4. 연구추진일정

- 연구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2015년 5월)
- 연구모임 1차 정기모임(2015년 5월 중)
- 조사·연구 실시(2015년 5월 중)
- 현장조사 실시(6월 칠갑산, 7월 덕산, 9월 대둔산)
- 연구모임 2차 정기모임 및 워크숍 개최(2015년 9월 중)
- 보고서 발간, 배포(2015년 11월 중)

5. 기대성과

- 도립공원의 우수 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지속성 확보
- 도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한 건강성 확보
- 도립공원의 보전을 통한 지역민의 자연 복지 증진
- 현명한 이용 전략을 통한 생태관광 시장의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자연자원의 활용(생태관광 운영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2 연구대상지 소개

1. 칠갑산 도립공원

- 위 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정산면, 장평면
- 지정일 : 1973년 3월
- 면 적 : 32.54km²
- 주요 자원 및 특성
 - 충남의 알프스라 불림
 -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상 중심, 핵심구간, 우수한 산림 생태
 - 천장호, 칠갑산자연휴양림, 장승공원 등 위치함

2. 대둔산 도립공원

- 위 치 : 충남 금산군, 논산시, 전북 완주군
- 지정일 : 1980년 5월
- 면 적 : 충남 24.54km² / 전북 28.1km²
- 주요 자원 및 특성
 - 많은 이용객이 찾는 명산으로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상 핵심구간
 - 우수한 산림 생태, 국제적 희귀종인 이끼도롱뇽 서식
 - 구름다리, 삼선약수, 태고사, 이치대첩지, 장군약수터 위치

3. 덕산 도립공원

- 위 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서산시 해미면, 운산면
- 지정일 : 1973년 3월
- 면 적 : 21.05km²
- 주요 자원 및 특성
 - 수덕사, 보원사지, 일락사 등이 위치한 경승지로 많은 유적 분포
 -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상 핵심구간
 - 인근에 서산마애삼존석불, 개심사, 덕산 온천 등이 위치함

3 사례 연구(참고자료)

1. 보호구역설정 및 단일관리체계의 중요성

1.1 중국의 보호구역

- 중국의 경우 1956년 처음 시작해서 2005년까지 전 국토의 11.3%에 달하는 면적에 2,000여 개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음
- 그 중 97%는 1985년 이후 지정되었으며 보호 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1960년대 303명이었던 외국인 생태관광객이 현재는 매년 3000만 명 이상임
- 생태관광객이 증가하는 반면 보호구역 내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특히 관리제도 및 계획 부재와 함께 8개의 각기 다른 기관이 이들 지역을 관리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서식지 단편화와 고립, 서식지 질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보호구역 설정의 경우 상품의 브랜드 역할을 하여 관광객에게 홍보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1.2 사례 분석을 통한 고려사항

- 천수만의 경우 랍사사이트,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과 같이 연차적인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함
- 천수만의 경우도 관리기관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나 관리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았음

- 먹이공급원과 휴식지인 농경지 및 호수 지역의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하며, 서식지 관리에 대해 기관별로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음
- 천수만 관리 계획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님에 따라 천수만 생태자원의 국제적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천수만 내 종다양성 확보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이를 위한 보호구역 설정과 관리 시스템 가동 및 구역 관리를 위해 단일화된 관리기관 혹은 조직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2. 보호구역 관리제도 마련의 중요성

2.1 미국의 델라웨어만

- 미국 델라웨어만의 경우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어 생태관광지가 형성됨
- 연구에 의하면 관광객에 의한 1982년부터 조류 서식지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에는 그 피해가 3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1992년의 경우 관찰구역을 구분하고 시설을 갖추었지만 피해는 계속 증가하였음
- 2002년에 도입된 출입통제와 관찰구역 설정, 새들의 먹이인 조개채취 금지, 개나 고양이 출입 금지, 해변 출입 금지 등과 같은 제도가 도입된 후에야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함

2.2 사례 분석을 통한 고려사항

- 천수만의 경우 조류서식의 핵심구역 혹은 보호구역 내에서의 탐조활동은 정해진 경로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보호구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 즉, 인위적인 공간에서만 탐조 및 체험 활동을 유도해야 하고, 천수만 내 출입 및 관리사업과 관련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3. 서식지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

3.1 뉴질랜드의 샌드플라이만

- 뉴질랜드 샌드플라이(sandfly)만은 많은 해양포유류와 3종의 펭귄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함
- 2000년 상업회사 두 곳이 펭귄 관광을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시설을 제공하였음
- 20,000명 이상이 한번에 몰려오면서 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부족하였으며, 몰리는 사람들은 펭귄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펭귄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음

3.2 호주의 필립섬

- 반면, 필립섬의 경우 관리위원회의 주관 아래 사진촬영금지, 관찰로 외 출입금지 등 엄격한 서식지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많은 관광객에도 불구하고 펭귄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3.3 사례 분석을 통한 고려사항

- 천수만의 경우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수입을 위해서는 관광객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방해요인을 예측하여 저감 방안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임



2015. 5.

제1차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회의록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제 1 차 연구모임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5. 5. 13.(수), 14:00 ~ 17: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1층)
- 참 석 : 14명(의원 6, 전문가 6, 집행부 2)
- 회의안건
 - 연구모임 계획 및 일정
 - 연구모임 연구내용
 - 현장방문 일정

2 회의내용

〈김홍열 위원장〉

- 사례연구를 통한 도립공원 활용 방안의 결과를 전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이후 의견 검토 필요
- 타시도 도립공원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필요
- 우리도, 타도 도립공원의 운영 실태 파악 및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도정에 반영

〈김문규 의원〉

- 충분한 사례 연구를 통한 국외 및 국내의 도립공원 운영 방안 벤치마킹 필요

〈성인경 본부장〉

- 산림의 경제성이 방치되어 온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 가능한 이용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민과 산 이용객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경제와 보전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략 필요

〈박충규 조합장〉

- 논산의 경우 산림녹지과 담당공무원 부재
- 설문조사 결과 국민 38%가 산림관련 직종 종사할 의견을 보이고 77%가 산림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등 산림에 대한 관심과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음

〈명노영 조합장〉

- 산림주변 축사 문제 개선 시급, 악취로 인해 많은 민원을 초래하며 탐방객의 불편 신고가 많음

〈이상현 조합장〉

- 산림관련 규제가 심하여 개발에 차질이 많음
- 보전 또한 중요하므로 개발과 보전을 아우르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임

〈조동규 환경정책과장〉

- 5억 추경 확보를 통해 내년도 도립공원 연구 및 보전 사업 추진 계획
- 도립공원의 관리 권한을 환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회의사진





4 참석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참석여부
대 표	전낙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연구간사	정옥식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여
연구회원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부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김용필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부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송덕빈	교육위원회 위원	여
	김석곤	교육위원회 위원	부
	지진호	건양대학교 교수	부
	성인경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여
	박충규	논산시산림조합장	여
	길호덕	금산군산림조합장	여
	명노영	청양군산림조합장	여
	이상현	예산군산림조합장	여

도립공원 보전 연구모임 첫발

도의회 전낙운 의원 등 참여
11월까지 보고서 제시키로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이 13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전낙운 의원(논산2)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대둔산, 칠갑산, 덕산 등 도내 도립공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다. 도립공원을 지역과 연계해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관광

객 유치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임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도립공원 자연자원 발굴 등 현황파악을 하는 동시에 도내 휴양림을 활용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11월에는 제기된 문제를 집약해 결과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전 의원은 “도립공원의 지속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현명한 이용 전략 모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112 X 75 mm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활성화 연구 첫발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이 13일 본격적으로 맞을 올린다.

전낙운 의원(논산2)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대둔산, 칠갑산, 덕산 등 도내 도립공원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립공원을 지역과 연계해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앞서 전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강원도와 경남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 도립공원 민자 유치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을 성사시키는가 하면 자전거 도로, 산상호텔과 같은 대대적인 관광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 모임이 결성된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날 풍부한 도립공원 관광 자원을 활용한 민자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10월까지 도립공원 자연자원 발굴 등 현황파악을 하는 동시에 도내 휴양림을 활용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112 X 80 mm



2

제2차 도립공원 연구모임 회의

제2차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회의개요

■ 회의개요

- 때·곳 : 2015. 7. 15.(수) 11:00 /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20여명(연구모임 16, 집행부, 전문위원실 등)
- 회의내용 : 도립공원 운영에 대한 선진사례연구 및 토의

■ 흐름도

일 자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분)		
7. 15. (수)	07:40	08:10	30	○ 남이자연휴양림 → 조찬장 이동	
	08:10	08:50	40	○ 조찬(민속전주식당) 콩나물 국밥	063)263-1658
	08:50	08:55	5	○ 조찬장 → 케이블카 이동	
	08:55	10:25	90	○ 케이블카, 등산 등	063)263-9949
	10:25	10:55	30	○ 케이블카 → 벌곡면사무소 이동	
	10:55	12:00	65	○ 연구모임 2차회의(2층 회의실)	746-8762
	12:00	12:10	10	○ 벌곡면사무소 → 오찬장 이동	
	12:10	13:30	80	○ 연산 황산벌 한우마을	736-4985
	13:30	14:40	70	○ 귀청	



2015. 7.

제2차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회의자료

주요내용

- ① 도립공원 관리 및 지구 조성계획 사례
- ② 공원지역 내 석도 건설 사례 및 계획
- ③ 도립공원관리조례 현황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1] 도립공원 관리 및 지구 조성계획 사례

1.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연구(2012)

- 부제 : 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특이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

가. 공원지역내 거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편 제기
- 생활불편과 더불어 낮은 수익에 대한 불만 제기
- 공원지역 해제시 지가 상승이나 수입의 상승은 미비하며 대신 생물종다양성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

나. 대안 제시

- 공원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물자원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필요
- 생성된 정보는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하며 보호지역 관리 계획 수립, 의사결정, 사업시행 등에 주민 참여
- 정기적 교육 및 주민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익 창출 및 지원을 제도, 법 마련 필요

2. 대둔산 도립공원 조성 타당성 연구(2004)

가. 개발가능지 분석

- 기존 집단시설지구 문제점 검토 및 대안제시
-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적지 선정

나. 개발 계획 및 시설 배치

- 신규 단독시설지구 추가 선정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
- 숙박, 수련원 등 시설 종류 전환 배치

3.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2010)

가. 현행 도립공원관리 문제 제시

- 공원관리 조직이 왜소함
- 현실에 부합한 관리 주체의 다양화 필요

나. 방안 제시

- 민간위탁, 공원관리소와 같은 조직신설, 국립공원일괄 관리 등의 대안 제시
- 공원 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이용 및 개발 고려 필요
 - ▶ 여러 연구를 검토해 볼 때, 공원 지역 주변 지역경제활성화,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등 인근주민 지원에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예산 증액이 요구됨
 - ▶ 국립공원의 경우 최근 들어 기반시설에 편중된 예산과 달리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2009년 현재 61억 수준으로 이는 1개 국립공원당 2.9억에 불과한 실정임.
 - ▶ 또한, 국립공원의 경우 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를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매입 확보하고 있음(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사유지매입을 위한 연간 예산이 전국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총 30억 :2013년 기준), 예산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 ▶ 충남 도내 지정 관광(단)지 27개 이중 조성 완료된 곳은 3곳 뿐으로 시설지구에 대한 관광지 개발시 여건분석과 관광객 선호도 조사, 시장 경기상황 및 관광유행 검토 등 심도 깊은 고찰이 요구됨

2. 공원지역 내 식도 건설 사례 및 계획

1.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가. 관련 법규

-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및 자연공원법 (환경부)

나. 설비기준 및 가이드라인

- 궤도운송법 제15조 (국토교통부) 규정에 의거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92호)」 마련되어 있음
-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일 경우 「자연공원 내 식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목적, 용어 정의, 사업주체, 설치시 고려사항, 운영시 고려사항을 명시
 -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 생물다양성 높은 지역,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 서식유무
 - 야생생물호보구역, 문화재, 전통사찰, 경관자원이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설치 배제할 것을 명시

2. 전국 식도 운영현황

관할	담당	업체명	업체주소
서울	택시물류과	한국식도공업(주)	중구 회현동 1가 산1-19
부산	동래구교통	유창식도(주)	동래구 온천동 산20-4
대구	남구교통	대덕개발(주)	남구 대명동 산227-1
	동구교통	(주)한림팩	동구 용수동 산72
	달서구교통	(주)이월드	달서구 두류동 산302-11
광주	동구교통	(주)나경인터내셔널	동구 지산동 산63-1
경기	과천시교통	동일식도(주)	과천시 막계동 산121-2
		관악산송신소	과천시 중앙동 산10
	용인시교정	삼성에버랜드(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
		(주)파인리조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34-1

관할	담당	업체명	업체주소
	남양주시자관	선진종합(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548
	포천시교행	(주)예지실업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295
	이천시교행	지산리조트(주)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28-1
	양주시교통	(재)송암스페이스센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170-1
	광주시교정	(주)서브원곤지암리조트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406
강원	속초시관광	설악케이בל카(주)	속초시 설악동 146-2
	원주시관광	(주)드림랜드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223-3
		한솔개발(주)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16
	평창군문관	(주)용평리조트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30
		(주)보광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098
		강원도개발공사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206-5
	횡성군도행	신안종합리조트(주)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204
	홍천군관래	(주)대명레저산업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125-1
	고성군관문체	(주)우민	고성군 간성읍 흘1리 72
	춘천시관광	지에스건설(주)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31-4
	정선군관문	(주)강원랜드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태백시관문	태백관광개발공사	태백시 황지동 409-20
		태백시	태백시 평화길 15
충남	계룡시건재	대전방송총국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00
충북	충주시교통	(주)블루밸리리조트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1
전남	담양군지경	추월산보리암	담양군 용면 월계리 산81
	해남군환교	(주)삼진관광개발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38-6
	목포시자등사	목포시	목포시 상동 349-1(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수시교행	여수포마(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55-134
전북	정읍시교통	내장산개발(주)	정읍시 내장동 산231
	무주군민경	(주)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산43-15
	완주군건교	(유)양지대둔산삭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23-30
	김제시교행	전주방송총국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523-3
경남	양산시교행	미타암	양산시 소주동 산171
		(주)신세계개발	양산시 어곡동 산489-1
	통영시교정	통영시	통영시 도남동 산63-26
경북	밀양시교행	(주)영남알프스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24-1
		얼음골케이בל카	
	구미시교행	(주)호텔금오산	구미시 남통동 산24-9
	경주시교행	삼봉개발(주)	경주시 천군동 191-5
	울릉군경교	울릉군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06-1

- 전국 단위 총 45개 지역에서 삭도 운영 중
- 이중 국립공원의 경우 설악산과 내장산, 덕유산 등 3곳, 도립공원의 경우 대둔산, 팔공산, 금오산, 두륜산 등에서 노선이 운영중임

※ 울릉도의 경우 울릉군 삭도케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3.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노선 사업 추진현황

가. 1차 신청(오색~대청봉 인근 노선) : 부결

○ 심의시기 :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2012. 6. 26)

○ 부결사유

- 상부지역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아고산 식생대로서 학술적,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 상부지역과 지주의 위치가 아고산 식생대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에 위치
- 상부지역은 대청봉 스카이라인에 위치해 있어 탐방공간 설치시 스카이라인 훼손 우려됨

나. 2차 신청(오색~관모능선 노선) : 부결

○ 심의시기 : 제105차 국립공원위원회(2013. 9. 25)

○ 부결사유

- 멸종위기종 산양의 주요 서식지로 보호 필요성 큰 것으로 판단
- 식도 이용자의 경관적 만족도 미흡 및 대청봉 탐방 압력 가중 예상
- 오색지구는 지형적 입지여건이 협소하여 교통체증 유발 등 친 환경 교통대책 미흡

다. 3차 신청 : 진행

① 대안노선 협의

○ 오색-끝청하단(해발1,480m)노선을 최종노선으로 선정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아고산식생대, 백두대간 마루금 등 보호구역을 회피한 지역

- 멸종위기종 산양의 출현빈도가 낮아(무인카메라 1회, 배설물 3회) 주요서식지를 회피한 지역
- 주봉(대청봉)과 이격거리가 충분(직선거리1.4km)하여 기존 등산로와 회피가 가능한 지역

※ 법정보호종 식물이 발견되지 않음

② 협의내용

○ 삭도설치 가이드라인 및 검토기준에 부합한 노선으로 선정

- 상부정류장이 주봉인 대청봉과 직선거리 1.4km 이격
- 상부정류장의 위치는 특별보호구역 및 아고산식생대를 회피
- 끝청 능선과 115m 고도차이로 스카이라인 보호
-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서식지를 피함
- 대청봉, 귀때기청봉, 서북능선, 동해, 주전골, 점봉산 조망이 가능하며 대청봉 탐방압력을 차단하는 폐쇄형 계획

라. 관련 계획 및 연구

- 오색지역 케이블카 설치 경제적 타당성 연구(강원발전연구원 진행중)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 발주 (2014. 12. 30~2015. 11. 29)

4. 기타 공원지역 삭도 설치 계획

-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내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2005, 보은군)
-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증가에 따른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케이블카 설치 연구
- 한라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제주도 추진(1994-2005)

○ 무등산국립(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탐방객 인식조사 등

- ▶ 공원지역 내 케이블카 설치의 경우 반대와 찬성의 격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학적 측면에서 많은 학술연구논문이 수행되었음
- ▶ 제주 한라산 사례의 경우 10년간 주장해오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포기하고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 등 자연보호 구역지정의 정책 전환으로 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둔 이례적인 사례도 있음

3 도립공원관리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지역	조례 명칭	주요 내용
광역 단체	충남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목적, 보호, 시설사용료, 점용료, 원상회복, 준용, 도립공원위원회, 기능, 구성 등
	전북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총칙, 관리, 도립공원위원회, 입장료 등
	전남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도립공원위원회, 시설사용료 등
	강원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총칙, 도립공원위원회, 입장료 등
	경남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총칙, 관리, 도립공원위원회, 입장료 등
	경기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총칙, 도립공원위원회, 비용의 징수, 관리 등
	경북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총칙, 관리, 도립공원위원회, 입장료 등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총칙, 지정·변경·고시, 공원계획, 도립공원의 보전, 도립공원위원회, 입장료 및 점용료 등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목적, 관리운용, 세입, 세출, 일반회계 지원, 예비비, 잉여금 처리	
지방 자치 단체	태백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목적, 위치, 적용범위, 시기 및 휴장, 시설사용료, 면제 및 경감, 위탁관리·운영, 입장 및 행위제한 등
		태백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목적, 정의, 요금 및 징수, 면제, 출입증, 시설사용료, 점용료 산정기준, 징수 시기, 과태료 등

구분	지역	조례 명칭	주요 내용
	문경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목적, 이용료 징수, 운행구간 및 시간, 탑승안전 등
	완주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운영조례	목적, 관리 및 운영, 재산의 관리, 임의 변경 금지, 위탁관리 및 수입금,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위탁관리·운영의 취소, 탐방객 편의제공 등
	양양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목적, 정의, 입장료 징수, 면제, 감면, 출입증, 시설사용료, 관람료, 요금표, 점용료, 징수시기 등
		양양군 낙산도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규정	목적, 불법행위, 단속책임, 허가대장, 허가사항, 감시공무원지정, 조치, 책임
	강릉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목적, 정의, 요금징수, 면제, 출입증, 시설사용료, 점용료 산정, 징수시기, 과태료, 원상회복 등

- ▶ 광역단체의 경우 도립공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구성과 세부사항이 유사하게 정리되어 있음
- ▶ 지자체의 경우 특정사항(입장료, 시설이용료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이 특징임
- ▶ 다만, 제주도의 경우 공원의 지정,변경,고시 및 공원계획, 공원보전에
관한 내용이 독립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에는 공원의
지정, 고시 그리고 공원계획, 공원의 보전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음

<붙임 1>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15.6.22.] [충청남도조례 제3995호, 2015.6.22., 일부개정]

충청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에 따른 도립공원의 보호·관리, 충청남도도립공원 위원회의 설치,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립공원의 명칭 등) 도립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립공원의 보호 등) ① 도지사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립공원의 보호와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도립공원관리청은 해당 도립공원의 시설사용요금표는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주차권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인할 수 있다.

제5조(비공원관리청의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등)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 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사본과 수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뜻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일할 산정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허가를 하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도립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점용폐지의 신고) 도립공원을 점용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도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사람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2조(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보건국장, 환경녹지국장,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하는 사람
3. 해당 공원 구역 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임기) 제14조제3항의 위촉위원과 제4항제2호·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담당이 된다.



2015. 7.

제2차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회의록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제 2 차 연구모임 회 의 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5. 7. 15.(수) 11:00 ~ 12:30
- 장 소 : 대둔산도립공원(완주군), 벌곡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64명(의원 6, 전문가 6, 집행부 2, 주민 50)
- 회의내용
 - 1) 연구모임 대표(전낙운 의원) 인사말
 - 2) 국내 도립공원 운영 사례 발표
 - ▶ 타 도립공원 운영 조례
 - ▶ 타 도립공원 이용개발 계획
 - ▶ 설악산 및 공원지역 삭도 계획
 - 3) 지역민 간담회 및 종합토론

2 회의내용

[지역민 의견]

〈김선문〉

- 국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개선이 시급, 특히 얼음골 축제 진행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큼

〈홍상훈(주민자치회장)〉

- 별곡면은 산림이 83%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이 주요 수입원이며 덧붙여 관광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올해 실시한 축제때 10,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보다 축제면적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

〈임승빈(번영회장)〉

- 사계절 탐방객이 많이 찾아 올 자원이 많아 공원 개발을 통한 지역수익을 기대하고 있음
-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남부권도시개발계획에서 2순위로 밀려났지만 대안 마련을 통해 재시도 요함

〈논산시 산림과장〉

- 1980년도에 대둔산도립공원 지정 이후 1983년, 2008년에 개발기본계획 수립했지만 실효성이 없었음
- 도립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 간의 기능 및 역할 조율이 필요함

〈한동준〉

- 민속자료 1,000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요망(기증의사도 있음)

〈백창현〉

- 기존시설을 활용해 개발해야 하며, 길복원 등 순환탐방로 조성 필요

[연구진 의견]

〈지진호 교수〉

- 보전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관광트랜드가 바뀌고 있으며 보전을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 삭도 같은 하드웨어를 통한 수요창출은 이후 부작용을 발생 시키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청양군 얼음골축제처럼 문화생태 중심의 아이템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서남부권과 대전권 결합)

〈성인경 본부장〉

- ‘국민이 요구하면 이용하라’라는 트렌드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이용을 방편으로 하는 개발전략 모색도 필요
- ‘개발’이라는 의미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 아이디어도 필요

〈이상용 환경정책과장〉

- 10년마다 도립공원계획을 수립하므로 내년도에 도립공원 계획 수립 예정
- 도립공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

〈김홍열 위원장〉

- 얼음골축제의 주차장문제는 그대로 놔두는 게 상책
 - 오히려 마케팅전략으로 이용하여 희소가치를 높임
- 관광 트렌드를 쫓지말고 소프트웨어를 찾는게 현명하며,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투자는 낭비

3 회의사진





4 참석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참석여부
대 표	전낙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연구간사	정옥식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여
연구회원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부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김용필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송덕빈	교육위원회 위원	부
	김석곤	교육위원회 위원	부
	지진호	건양대학교 교수	여
	성인경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여
	박충규	논산시산림조합장	여
	길호덕	금산군산림조합장	여
	명노영	청양군산림조합장	부
	이상현	예산군산림조합장	여

대둔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가 도내 도립공원을 활성화·보존시키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그 첫걸음으로 타 지자체 도립공원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는 등 벤치마킹을 통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방안 연구모임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전북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과 논산 벌곡면을 찾아 제2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앞서 이 연구모임은 지난 5월 전낙운 의원(논산2)을 대표로 총 16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도립공원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였다.

이날 대둔산 도립공원을 찾은 임원들은 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관광개발 활성화 현장을 체험하는 동시에 관광객 취향과 연령대, 주변 숙박, 음식점 등을 점검했다. 임원들은 또 벌곡면 지역민을 만나 보존과 친환경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전 의원은 “1980년 대둔산을 충남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원에서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산지역 대둔산만 봐도 등산로 등이 조성됐지만, 주변 개발이 미흡해 인근 지자체에 관광객을 뺏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도의회 현장점검·벌곡면 지역민 만나 의견청취
“보존·활용 선행 ... 수요자 중심 친환경 개발을”



도립공원 개발 정책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박사는 “자연공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대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는 수익 창출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체계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연구를 앞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진호 건양대 교수는 “보존과 활용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 반딧불이 많았던 무주의 경우 개발로 인해 반딧불이 실종됐다”며 “지역민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 친환경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복만 도의원(금산2)은 “개발하는 방향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둔산을 예로 들면 호남과 대전권을 포괄하는 중요한 입지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 개발 사례를 잘 접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성인경 산림조합 중앙회 충남지역 본부장은 “그동안 보호정책이 우선이었다면, 최근 추세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시멘트로 만드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 소득은 늘리면서 산림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169 X 173 mm

대둔산 충남도립공원 개발사업 ‘요원’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논산 벌곡면서 간담회
“친환경 개발”...“보존하자” 원론적 의견만 표출

[논산]〈속보〉=대둔산 충남도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식당, 숙박밀 위락시설 등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쉽게 진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보 13일자 17면 보도>

충남도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모임(대표 전낙운 의원 논산 제2선거구)은 15일 논산시 벌곡면사무소에서 벌곡면 주민을 비롯해 충남도, 논산시, 산림조합,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충남도의 의

견을 모아 개발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전낙운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신 논산시 산림공원과장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83년, 2008년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충남도가 수립했지만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논산시가 충남도의 위탁을 받아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도는 인건비 수준의 지원의 예는 (개발)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도가 관리권을 환원하겠다고 한다”며 “누가 관리 하던 도의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연구모임은 15일 벌곡면 사무소에서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민 기자

개발의지가 필요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락계곡의 물을 이용한 수영장 설치” “모노레일 설치” “지역민 수익창출 방안 모색” “도립공

원지정으로 침해받고 있는 개인 재산권 보상방안 마련” “국가가 개발을 못하면 개인이라도 펜션 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뚜렷한 개발 방향 설정 없이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신중히 해야 한다” “보존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의견만 표출돼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전 대표는 “논산지역 대둔산만 봐도 등산로 등이 조성됐지만, 주변 개발이 미흡해 인근 지자체에 관광객을 뺏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도립공원 개발 정책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5월 전낙운 의원을 대표로 총 16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도립공원 발전을 통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으며 이날 대둔산 도립공원을 찾은 임원들은 케이블카 사업 등을 살폈다. 이영민 기자



3

도립공원 연구모임 현장방문



2015. 10.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현장방문 추진계획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현 장 방 문 추 진 계 획

- ◇ 성공적인 공원 개발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타 시·도의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충남도에 적용할 만한 우수방안 및 정책 모색

I 개 요

○ 기 간 : 2015. 10. 29.(목) ~ 10. 30.(금), 1박 2일

○ 방문대상 : 4개소(강원도, 충청북도 지역)

<1일차>

① 대관령 하늘목장(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458-23)

- ▶ 산을 활용한 관광업 성공 사례 시설로 운영현황에 대한 벤치마킹

② 양양군청(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상황 청취

<2일차>

① 설악씨네라마(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2983번길 111)

- ▶ 설악산 국립공원을 개발·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개념 영상테마파크 견학

② 월악산 국립공원(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0-2)

- ▶ 무장애 탐방로 산책 및 우수 개발사례인 닛돈재야영장 견학

○ 방문인원 : 15명(전낙운 대표 등 회원 8, 직원 5, 집행부 2)

○ 주요내용

- 국립공원(인근지역 포함)의 성공적 개발사례 현지답사
- 충남도의 효과적인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략 수립

일 자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분)		
10. 29. (목)	10:30	11:30	60	○ 이동(도의회 → 유성 월드컵경기장)	84km
	11:30	12:10	40	○ 이동(만남의 광장→ 오찬장, 오창휴게소)	55km
	12:10	12:50	40	○ 오창휴게소(오찬)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22	
	12:50	15:20	150	○ 이동 → 대관령 하늘목장	202km
	15:20	16:50	90	○ 대관령 하늘목장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458-23	033) 332-8061
	16:50	17:50	60	○ 이동 → 양양군청	72km
	17:50	18:30	40	○ 양양군청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033) 670-2530
	18:30	18:35	5	○ 이동 → 만찬장, 송림식당	0.2km
	18:35	20:00	95	○ 송림식당(만찬)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58-18	033) 671-1411
	20:00	20:30	30	○ 이동 → 한화리조트설악(속초시 소재)	21km
10. 30. (금)	08:00	08:50	50	○ 이동 및 조찬(궁중해장국본가) -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445	033) 635-3505
	08:50	09:00	10	○ 이동 → 설악씨네라마	
	09:00	10:30	90	○ 설악씨네라마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2983번길 111	033) 635-7711
	10:30	12:00	90	○ 이동 → 오찬장, 원주휴게소	143km
	12:00	12:40	40	○ 원주휴게소(오찬)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	
	12:40	14:00	80	○ 이동 → 월악산 국립공원	95km
	14:00	15:00	60	○ 월악산 국립공원 -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0-2	043) 635-3505
	15:00	16:40	100	○ 이동(월악산 → 유성 월드컵경기장)	130km
	16:40	17:40	60	○ 이동(유성 월드컵경기장 → 도의회)	84km

1. 대관령 하늘목장 방문 <10. 29.(목) 15:20~16:50>

- 규 모 : 1,000ha(여의도 면적의 약 4배)
- 가 축 : 420여마리(젓소 250, 한우 50, 말·면양 120)
- 방 문 객 : 월 2만 5,000명
- 연 혁
 - 1974년 한일목장으로 개장해 목축업에 종사하다 고원 산지초지 명소로 특화하기 위해 2012년 강원도, 2014년 낙농진흥회로부터 체험목장 인증
 - 일반인들에게 미공개하다 2014년 9월, 40년 만에 개방
- 주요내용 : 트랙터 마차 탑승해 목장 전반을 둘러보며 목장 조성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2. 양양군청 방문<10. 29.(목) 17:50~18:30>

- 참 석 자 : 17명
 - 연구모임 : 15명(회원 8, 직원 5, 집행부 2)
 - 양 양 군 : 2명(오색삭도 추진단장외 1명)
- 주요내용 :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상황 청취

3. 설악 씨네라마 방문 <10. 30.(금) 09:00~10:30>

- 시설현황
 - 1300년전 고구려를 재현한 영상테마파크로, 국내 최대규모의 고구려 양식 세트와 당나라 양식의 세트 조성
 - 대조영, 기황후, 마의 등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
 - ※ 씨네라마 : 씨네마의 Cine와 드라마의 Rama가 합쳐진 합성어
- 주요내용 : 국립공원 인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관광업 개발 우수사례로, 시설 조성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4. 월악산 국립공원 방문 <10. 30.(금) 14:00~15:00>

- 무장애 탐방로 산책(문화해설사 안내)
- 월악산 국립공원 내 최근 조성된 닛돈재야영장 방문해 도내 공원에 적용가능방안 모색

IV 참석자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계	15명	
대표	전낙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사	정옥식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회원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원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원	김용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원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원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원	송덕빈	교육위원회 위원	
직원	이상용	환경정책과장	
직원	이돈규	산림녹지과장	
직원	류재홍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수행
직원	신상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수행
직원	최영길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주무관	수행
직원	이성복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주무관	수행
직원	이양호	총무담당관 주무관	운전



2015. 10.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현장방문 회의자료

주요내용

- ①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 (예산군)
- ② 칠갑산 산약초 클러스터 육성 (청양군)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사업명 :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 (예산군)

□ 사업의 배경 및 목적(필요성)

- 관광자원간 연계 극대화를 통한 테마 관광벨트 구축
- 덕산지구를 온천, 관광, 휴양을 겸한 중부권 대표적 관광 명소화
- 수덕사와 연계한 덕숭산 개발로 관광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덕산면 사천리, 둔리, 광천리(덕숭산 주변)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사업규모(내용)
 - 사방사업(계류보전 30km, 사방댐 8개소)
 - 숲길조성(20km)
 - 가로수식재(20km)
 - 특화조림(150ha)
 - 숲가꾸기(1,000ha)
 - 힐링체험길(데크로드, 스카이워크, 황토길, 테마쉼터)
 - 생태놀이장(무장애놀이터, 숲속 물놀이장, 야외무대, 잔디광장)
- 소관(관련)중앙부처 : 산림청,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성격 : 신규사업
- 사업추진방식(법적 근거) : 보조사업
- 총사업비 : 310억원(국비 175, 도비 45, 군비 90)

□ 사업내용

- 사방사업
 - 기 간 : 2015 ~ 2017
 - 위 치 : 덕산면 사천리, 둔리, 광천리(덕숭산 주변)
 - 사 업 량 : 계류보전30km / 사방댐 8개소
 - 사 업 비 : 8,00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연재해 예방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방댐 설치

○ 숲길조성

- 기 간 : 2015 ~ 2017
- 위 치 : 내포신도시 ~ 수덕사 ~ 광천리
- 사 업 량 : 20km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등산로 등 수덕사와 인근지역을 연결하는 숲길조성

○ 가로수 식재

- 기 간 : 2015 ~ 2017
- 위 치 : 국도40호(덕산~수덕사~북당리), 국도45호(삼교~광천리)
- 사 업 량 : 20km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수덕사덕숭산과 어울리는 수종식재

○ 특화조림

- 기 간 : 2015 ~ 2017
- 위 치 : 덕산면 사천리, 둔리(수덕사 진입도로 가시지역)
- 사 업 량 : 150ha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사업내용 : 수덕사 진입도로 가시지역에 풍광과 힐링을 고려한 경관조성

○ 숲 가꾸기

- 기 간 : 2015 ~ 2017
- 위 치 : 덕숭산 주변(사천리, 둔리, 광천리, 대치리)
- 사 업 량 : 1,000ha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 가꾸기

○ 힐링체험길

- 기 간 : 2016 ~ 2020
- 위 치 : 덕숭산 ~ 대웅전 ~ 정혜사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데크로드, 스카이워크, 황토길, 테마쉼터

○ 생태놀이장

- 기 간 : 2016 ~ 2020
- 위 치 : 수덕저수지 상류 공터
- 사 업 량 : A=40,000m²
- 사 업 비 : 5,216백만원
- 사업내용 : 무장애놀이터, 숲속 물놀이장, 야외무대, 잔디광장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계	310	105	63	47	47	48	
국 비	175	66	39	23	23	24	
도 비	45	15	9	7	7	7	
시군비	90	24	15	17	17	17	
민 자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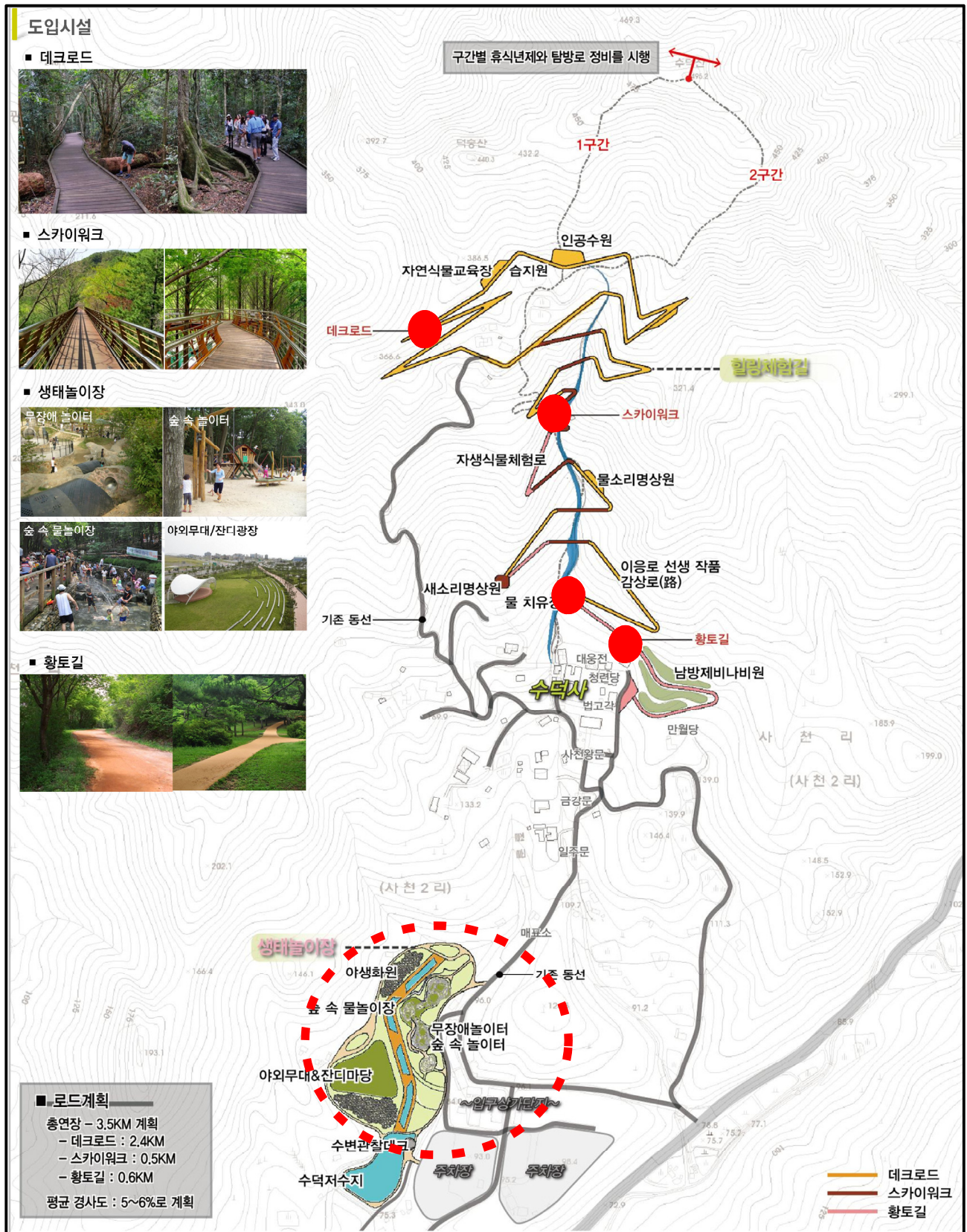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5년~2017년 : 사방댐 설치 8개소(산림축산과)
- 2015년~2017년 : 수덕사진입로 가시지역 조림(산림축산과)
- 2015년~2017년 : 숲가꾸기 4개소(산림축산과)
- 2015년~2017년 : 내포시~수덕사~광천리 숲길조성6km(산림축산과)
- 2015년~2017년 : 덕산~수덕사~복당리외 1 가로수 식재20km(산림축산과)
- 2016년~2020년 : 덕숭산~대응전~정혜사 힐링길(환경과)
- 2016년~2020년 : 수덕저수지 상류 생태놀이장(환경과)
- 2016년~2020년 : 도량길 체험 외 3종 운영(환경과)
- 2016년~ : 권역내 관광자원 벨트화(문화관광과)

□ 기대효과

- 자연과 공생을 통한 국민 휴식 및 힐링공간 조성
- 서해 금빛열차, 버스투어 등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붙임> 위치도 및 개념도



사업명 : 칠갑산 산약초 클러스터 육성 [청양군]

□ 사업의 배경 및 목적(필요성)

- 충남의 알프스 청정청양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산약초(한약재)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산약초는 기존의 주용도인 한약재외에 기능성식품, 한방화장품 등 용도의 다양화 및 발전가능성 무한함으로 이에 부응하는 정책 개발 및 선도적 대응
- ➡ **산약초 대단위 단지육성으로 중부권 한약재 생산·유통 거점화**

□ 사업개요

- 위 치 : 청양군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0(4년간)
- 사업규모(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내 용	비 고
합계		200억		
산약초연구소	1개소	45억	1,300㎡(600평)30억, 시설장비 15억	
산약초 가공공장	1개소	40억	1,300㎡(400평)20억, 시설장비 20억	
재배단지조성	7개소	105억	15억× 7개소 = 105억	140ha
기타사업	1식	10억	기술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 소관(관련)중앙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성격 : 신규사업
- 사업추진방식(법적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국가균형발전계획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100, 도비50 시·군비50)

□ 사업내용

주 요 내 용	① 산약초 생산기반 확충 10대품목 중점육성 : 기존품목(3개) → 품목 다변화(7개추가) ※ 기존 : 구기자, 맥문동, 오미자 ※ 추가 : 당귀, 황기, 천궁, 작약, 숙지황, 백수호, 백출 - 품목 재배단지 조성(10개소 : 기존 3개소, 추가 7개소) ※ 기존 : 3개소 → 구기자/비봉, 오미자/운곡, 맥문동/남양 ※ 추가 : 7개소 → 신규품목 읍면별 1개소 신규재배단지 조성
	② 산약초 유통기반 확충 - 청양시장내 약초상가 활성화를 통한 유통 거점화 - 구기자조합(산약초 조합으로 확대) 유통기반 확충 및 역할 강화 - 온라인 쇼핑몰 등 직거래 기반 조성
	③ 산약초 연구기반 확충 (R&D연구소 설치) - 산약초 산업화를 위한 산학협력(연구소 설치 등) ▶ 단국대학교 농장 개발 사업계획과 연계 - 산약초를 활용한 각종 기능성 제품(식품, 의약품 등)개발
	④ 산약초 교육기반 확충 - 농업기술센터 신규품목 도입교육과정 운영 및 지속적 기술지도 - 품목별 기술선도 농가 육성을 통한 기술보급 효율화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계	200		105	10	45	40	
국 비	100		52.5	5	22.5	20	
도 비	50		26.25	2.5	11.25	10	
시군비	50		26.25	2.5	11.25	10	
민 자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생산기반 확충: 3개면 3개 품목 → 10개 읍·면 10개품목으로 확충('18년)
- 유통기반 확대: 기존 약초시장 활용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직거래 기반조성('19년)
- 산약초 R&D 연구소 및 가공공장 건설('19 ~ 20년)

□ 기대효과

- 산약초 중점육성 10대품목(기존재배 3품목 + 신규재배 7품목)을 지정 및 중점 육성하여 우리군을 산약초의 보고 및 웰빙의 고장으로 육성
- 산약초는 기능성식품, 한방화장품 등 기존 한약재외에 활용도가 다양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임으로 이에 선도적 대응을 통한 소득 기반 확충
- 청정청양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산약초(한약재)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및 중부권 한약재 유통거점화



2015. 10.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모임 현장방문 회의록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연구모임 현장방문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0. 29.(목) 18:00 ~ 20:00
- 장 소 : 송림식당(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소재)
- 참석인원 : 16명(의원 6, 전문가 1, 집행부 2, 직원 5, 양양군청 2)
- 진행순서
 - 1) 연구모임 대표(전낙운 의원) 인사말
 - 2)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 김철래 담당의 설악산 오색삭도추진 상황 설명

2 회의내용

☐ 오색삭도 추진 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 : 동계올림픽, 동서고속도로 개통, 양양 공항 등 관련 인프라 증가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노약자에게 동반 기회제공 :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산을 향유할 수 있는 평등권과 행복권 보장
- 과도한 동반으로 인한 훼손 방지 :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 평균 탐방객수인 100m당 4.5명보다 5배이상 많은 100m 당 26명이며 또한 경사지가 많은 관계로 훼손이 심한 상태

□ 경과

- 15년 동안 3번의 시도 끝에 통과됨
- 2012년 1차 부결안의 경우 대청봉과 거리, 출입통제 불가능, 수용인원 미제시, 아고산식생대 훼손유려, 대청봉 스카이라인 훼손의 사유
- 2013년 2차 부결안의 경우 산양의 서식지 훼손, 삭도 이용자 경관 만족도 미흡, 교통체증 유발, 친환경교통대책 미흡, 다량의 절토량 발생우려 등의 사유
- 2015년 3차 승인은 야생동물의 활동도가 낮은 지역 선정, 친환경교통대책 수립, 환경보전기금 운영, 야생동물보호기금, 가이드라인 삭도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실시의 조건으로 이뤄짐

□ 오색 삭도 추진 개요

- 노선은 오색부터 끝청까지 총길이는 3.5km이며 총 6개의 지주가 세워질 계획으로 헬기로 운송하여 산림파괴를 최소화함
- 수송능력은 시간당 825명이며 8인승 곤돌라가 53대 동시 운영될 계획이며, 기존 등산로와 연결은 배제함
-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는 460억원이며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운영계획임

3 회의사진



4 참석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참석여부
대 표	전낙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연구간사	정옥식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여
연구회원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부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김용필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부
	송덕빈	교육위원회 위원	여
	김석곤	교육위원회 위원	부
	지진호	건양대학교 교수	부
	성인경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부
	박충규	논산시산림조합장	부
	길호덕	금산군산림조합장	부
	명노영	청양군산림조합장	부
	이상현	예산군산림조합장	부

도의회 도립공원 연구모임 동분서주

양양·월악산 현장견학, 대둔산 등 보전·경제활성화 모색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해법 모색을 위해 타 시·도 정책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전낙운 대표를 비롯해 연구모임 임원들은 얼마전 강원도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및 충북 제천 월악산 무장애 탐방로, 닛폰재 야영장 등을 둘러봤다.

이처럼 연구모임이 앞장서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하고 나선 것은 도내 대둔산과 칠갑산, 덕산 등 도립공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다.

친환경과 경제 등 일거양득 효과를 누리려면 현장 활동을 통한 생생한 목소리 청취가 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임원들은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경위

와 민자 유치 성공사례, 관리 운영 계획 및 지역민 참여율 제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 주변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충북 제천 월악산 국립공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야영장 경제성 분석과 캠핑트렌드 변화 등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전 대표는 “도립공원의 지속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현명한 이용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충남에 접목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180 X 71 mm

중앙매일

2015년 11월 03일 (화)

종합 02면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달 29~30일 양일간 타 시·도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충남도의회, 설악산 등 정책 사례 수집

대둔산, 칠갑산, 덕산 등 지역 경제 이바지할 대안 마련 박차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달 29~30일 양일간 타 시·도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낙운 대표를 비롯해 연구모임 임원들은 이날 강원도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및 충북 제천 월악산 무장애 탐방로, 닛폰재야영장 등을 둘러봤다.

이처럼 연구모임이 앞장서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하고 나선 것은 도내 대둔산과 칠갑산, 덕산 등 도립공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다.

친환경과 경제 등 일거양득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현장 활동을 통한 생생한 목소리 청취가 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임원들은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

과 관련,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경위와 민자 유치 성공사례, 관리 운영 계획 및 지역민 참여율 제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 주변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충북 제천 월악산 국립공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야영장 경제성 분석과 캠핑트렌드 변화 등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전 대표는 “도립공원의 지속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현명한 이용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충남에 접목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집약해 이달 중으로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오천수 기자

120 X 201 mm



4

제3차 도립공원 연구모임 회의

제3차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회의개요

■ 회의개요

- 때 · 곳 : 2015. 11. 30.(월) 17:00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실
- 참 석 자 : 20여명(연구모임 16, 집행부, 전문위원실 등)
- 회의내용 : 결과보고서 초록본 제작에 따른 설명 및 의견수렴

■ 흐름도

일 자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분)		
11. 30. (월)	17:00	17:05	5	○ 인사말씀	대표
	17:05	17:25	20	○ 결과보고서 제작방향 설명	간사
	17:25	17:55	30	○ 토론	회원
	17:55	18:00	5	○ 의견수렴 및 발표	대표
	18:00	~		○ 만찬	



2015. 11.

제3차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회의록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제 3 차 연구모임 회 의 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1. 30.(월) 17:00 ~ 18:00
- 장 소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실
- 참석인원 : 10명(의원 8, 전문가 2)
- 진행순서
 - 1) 연구모임 대표(전낙운 의원) 인사말
 - 2) 정옥식 연구모임 간사로부터의 결과보고서 초록 제작 설명

2 회의내용

- 실 적
 - '15. 5. 13 : 제1차 회의(충남도의회 회의실)
 - '15. 7. 15 : 제2차 회의 및 현장방문(별곡면사무소, 대둔산)
 - '15. 10. 29~30 : 현장방문(설악산, 월악산 국립공원)
 - '15. 11. 30 : 제3차 회의(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실)
- 회의내용 : 국내외 우수사례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충남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전략 구상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3 회의사진



4 참석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참석여부
대 표	전낙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연구간사	정옥식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여
연구회원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김용필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 위원	여
	송덕빈	교육위원회 위원	여
	김석곤	교육위원회 위원	부
	지진호	건양대학교 교수	부
	성인경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여
	박충규	논산시산림조합장	부
	길호덕	금산군산림조합장	부
	명노영	청양군산림조합장	부
	이상현	예산군산림조합장	부



전략구상 연구보고

연구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3
1) 연구 배경	93
2) 연구 필요성	94
2. 연구의 목적	94
3. 연구 내용 및 방법	95
4. 연구대상지	96
1) 칠갑산 도립공원	96
2) 대둔산 도립공원	96
3) 덕산 도립공원	97

II. 공원과 지역사회

1. 여건 분석	101
1) 국외 여건	101
2) 국내 여건	103
2. 공원이정의 지역사회 영향	105
1) 공원이정의 긍정적 영향	105
2) 공원이정의 부정적 영향	106
3) 공원이정의 문제점	109
3. 공원 지정, 관리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2
1) 공원 내 거주민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	112
2) 도립공원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112
3) 공원 해제와 지역사회	113
4) 종합검토	115

Ⅲ.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례

1. 생태관광 및 에코뮤지엄과 지역사회	119
1) 생태관광 및 에코뮤지엄의 정의	119
2) 생태관광과 지역사회	123
2. 마을주변 에코뮤지엄 운영 사례	126
1) 일본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	126
2) 스웨덴 베르그슬라겐 에코뮤지엄	127
3) 스웨덴 크리스티안 스타트 에코뮤지엄	128
4) 부산 감천문화마을	131
3. 공원 지역 생태관광 운영 사례	133
1) 호주 케언즈 쿠란다 마을	133
2) 모턴섬(Moreton Island) 생태관광 운영	139

Ⅳ. 현장조사 및 결과

1. 대둔산 도립공원	145
2. 대관령 하늘목장	147
3. 설악산 시네라마	149
4. 월악산국립공원(닷돈재 야영장)	150
5. 현장조사 결과 시사점	152

Ⅴ. 충남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전략 구상

1. 도립공원 SWOT 분석	155
1) SWOT 분석	155
2) 도출 전략	156
2. 도립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156
3. 도립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157

표 차례

[표 II-1] 경주국립공원의 연도별 탐방객 수	105
[표 II-2] 국립공원 거주민 간담회 의견(불편사항) 수렴 결과(2008, KEI)	107
[표 II-3] 국립공원 거주 주택 가격 변동여부(2013. KEI)	108
[표 II-4] 경주 국립공원 연도별 청소작업 인원(단위 : 명)(국립공원 백서)	109
[표 II-5] 보호지역 지정 지역과 해제지역 주민의 재정 평균액(출처 : KEI 2012)	113
[표 II-6]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 여부(출처 : KEI 2012)	114
[표 II-7] 보호지역 해제지역 주민의생활 만족도 리커드 척도(출처 : KEI 2012)	114
[표 III-1]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WTTC 2001)	124
[표 III-2] 생태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Weaver, 2007)	125
[표 IV-1] 대관령 지역 목장투어 장소 및 주요 탐방 수단	148
[표 IV-2] 현장조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52

그림 차례

[그림 II-1] 생태관광 인지도 변화 추이	104
[그림 II-2] 생태관광 용어의 연도별 언론 노출빈도	104
[그림 II-3] 생태관광 참여 경험률 변화 추이	104
[그림 II-4] 경주국립공원의 월별 탐방객 수(2010년 기준)	105
[그림 II-5]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민의견	108
[그림 III-1] 생태관광의 범주	121
[그림 III-2] 베르그슬라겐 에코뮤지엄 관련 자원	129
[그림 III-3] 크리스티안 스타트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현장	130
[그림 III-4] 감천마을 옛사진(출처 : 감천마을 홈페이지)	131
[그림 III-5] 공중목욕탕을 리모델링한 화랑(출처 : 감천마을 홈페이지)	132

[그림 III-6] 감천마을 현재모습(출처 : 감천마을 홈페이지)	132
[그림 III-7] 쿠란다 마을 체험 사진	134
[그림 III-8] 쿠란다 관광기차	135
[그림 III-9] 열대우림 체험 사진	136
[그림 III-10] 스카이라일 체험 사진	138
[그림 III-11] 모틴섬 체험 사진	141
[그림 IV-1] 대둔산케이블카 케이블 제원 설명	145
[그림 IV-2] 대둔산 케이블카 현장 조사 모습	146
[그림 IV-3] 대관령 하늘목장	148
[그림 IV-4] 설악산 시네라마	150
[그림 IV-5] 월악산국립공원(닷돈재 야영장)	152



연구의 개요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자연환경 관리를 위한 공원지정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사회와 자연복지 측면에서 공공재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공원 지정관리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

□ 공원 지정에 의한 지역 불균형 발생

- 사회의 공공재인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공원이 지정되지만 공원 지정 지역의 경우 사유재산 침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음
- 또한 공익적 보전 가치를 위해 공원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제외되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사유재산 침해 방지와 역차별 개선책 공감대 형성

- 최근 들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국가적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공원지역사회와 같이 공공적 가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지역사회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하자는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정책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2) 연구 필요성

☐ 지역자원(공원) 보전과 연계한 지역발전 모델 필요

- 제한된 자본과 재원을 지닌 지역 발전 한계를 고려한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 필요

☐ 불균형 해소와 역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

-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하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모델 제시 필요

2. 연구의 목적

☐ 지역자원(공원)의 보전 및 관리 방안 도출

- 지역의 자원인 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방안 도출

☐ 지속한 지역발전 전략 구상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발전이 가장 이상적인 지역발전 모델임
- 사례분석과 문헌연구를 통해 충남 도립공원과 지역사회의 발전 전략을 구상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 공원 지정 관련 지역사회 영향

- 공원이 지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음
- 문헌 및 기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원이 지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음

□ 지역자원 활용한 경제 활성화 국내외 사례 수집

- 공원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생태관광과 에코뮤지엄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이 가지는 자본과 재원적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대중 관광이 지니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 방문 및 연구를 토해 진행하였으며 해외 사례의 경우는 인터넷과 문헌 연구를 통해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음

□ 공원 주변 지역 발전전략 모색

-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립공원의 활성화 방향과 발전전략을 모색하였음

4. 연구대상지

1) 칠갑산 도립공원

- ☐ 위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정산면, 장평면
- ☐ 지정일 : 1973년 3월
- ☐ 면적 : 32.54km²
- ☐ 주요 자원 및 특성
 -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음
 -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상 중심, 핵심구간으로 지정되어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음
 - 우수한 산림 생태를 지니고 있음
 - 천장호, 칠갑산자연휴양림, 장승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위치함

2) 대둔산 도립공원

- ☐ 위치 : 충남 금산군, 논산시, 전북 완주군
- ☐ 지정일 : 1980년 5월
- ☐ 면적 : 충남 24.54km² / 전북 28.1km²

□ 주요 자원 및 특성

- 많은 이용객이 찾는 명산이며 우수한 경관을 지니고 있음
-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상 핵심구간으로 보전적 가치가 높음
- 우수한 산림 생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적 희귀종인 이끼도롱뇽이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음
- 구름다리, 삼선약수, 태고사, 이치대첩지, 장군약수터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음

3) 덕산 도립공원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서산시 해미면, 운산면

□ 지정일 : 1973년 3월

□ 면적 : 21.05km²

□ 주요 자원 및 특성

- 수덕사, 보원사지, 일락사 등이 위치한 경승지로 많은 유적 자원이 분포하고 있음
-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상 핵심구간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임
- 인근에 서산마애삼존석불, 개심사, 덕산 온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음



2

공원과 지역사회

II. 공원과 지역사회

1. 여건 분석

1) 국외여건

☐ 자연복지 욕구 증대

- 온전하고 건강한 자연을 생활주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생활의 일환으로 자연에 대한 욕구충족은 자연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

☐ 대중관광의 대안으로 떠오른 생태관광

- 많은 관광객 유치로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중관광의 경우 지역자원의 고갈, 환경훼손, 지역사회 분쟁 야기 등 대중관광이 지니는 폐해와 역기능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
-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자원봉사관광 등과 같은 대안 관광이며, 이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생태관광임

□ 지역자원 보전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관심 부각

-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관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재투자함
- 이로써 보전과 지역경제의 순환 체계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자연 환경에 대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기존의 관광과 구별됨
- 따라서 생태계 친화적이며, 시설 위주의 대규모 개발보다는 프로그램 위주의 관광 상품 개발을 지향하고, 관(官)이 아닌 주민과 NGO가 주도하는 형태임

□ 급성장중인 시장 규모

- 전체 관광시장의 13%에 해당하며, 해마다 10~15%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2001년 기준 384억 달러의 경제적 규모를 보임(미국야생 동물보호국)
- 캐나다의 경우 1,300만 명이 생태관광을 즐기며 유럽의 경우 대중관광객의 20~30%가 생태관광을 이용
- 독일은 전체 관광객의 60%에 해당하는 3천9백만 명이 생태 관광에 관심을 보이며, 이 중 42%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1,000억불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2) 국내여건

□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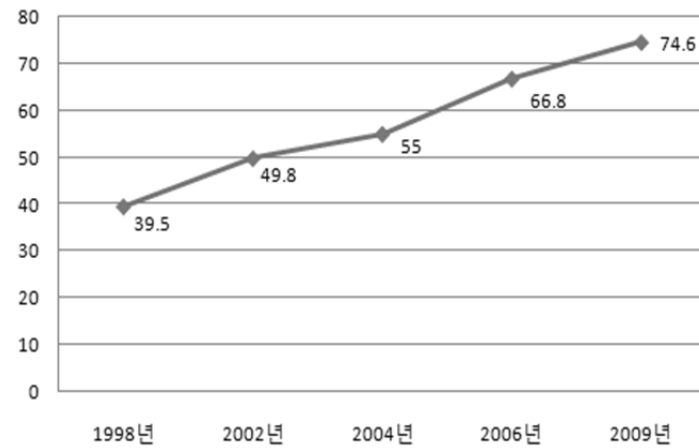
- 외부 자본과 토건 중심의 개발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의 경우 지역자원 고갈, 환경오염, 지역 내 갈등 증가, 자원 유출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한정된 지역 내 재원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자연활동에 대한 수요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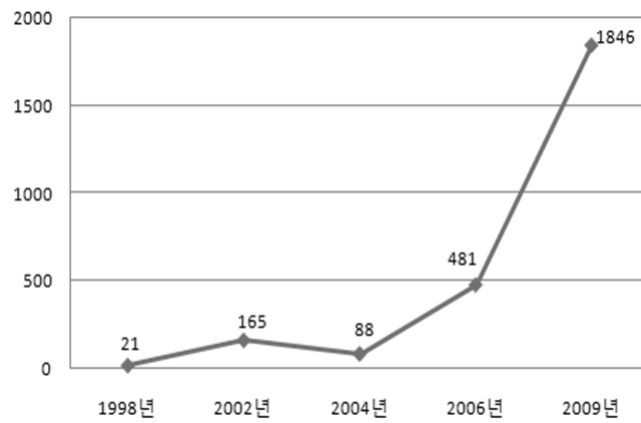
- 소득증대와 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연에서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캠핑인구는 3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파생된 자연활동이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

□ 생태관광 인지도 및 잠재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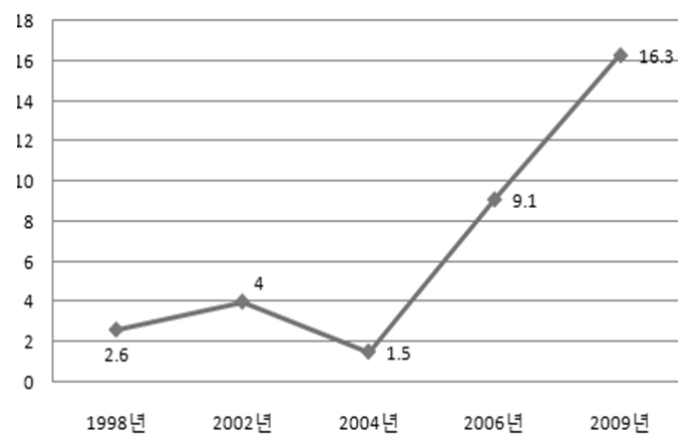
- 언론이나 매체에 노출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생태관광에 대한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67%, 2009년 75% 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각 지자체의 정책에도 많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지자체별로 특색에 맞는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체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음



[그림 II -1] 생태관광 인지도 변화 추이



[그림 II -2] 생태관광 용어의 연도별 언론 노출빈도



[그림 II -3] 생태관광 참여 경험률 변화 추이

2. 공원지정의 지역사외 영향

1) 공원지정의 긍정적 영향

□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른 방문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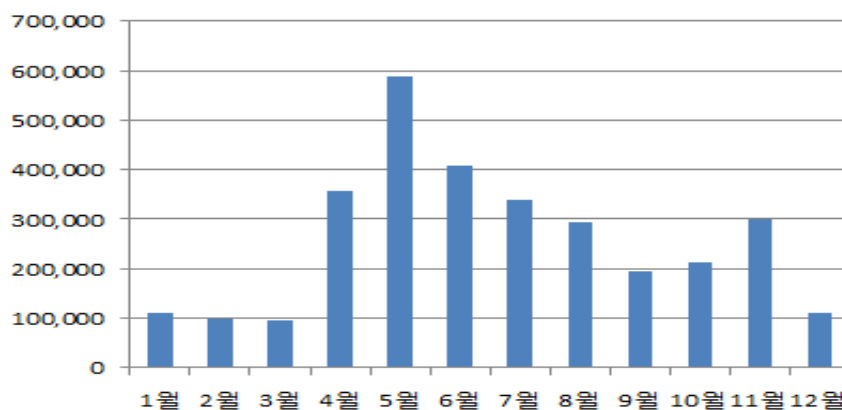
- 국립공원이 지니는 높은 인지도에 의해 2010년 기준 국립공원의 한해 탐방객 수는 42,000,000여명에 달함
- 사적형 국립공원인 경주의 경우 2010년 한해 3,000,000여명에 달함. 특히 2004년 이후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정책에 따라 탐방객의 수는 급증하게 됨
- 충남 도내 도립공원의 무료입장은 탐방객의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도권에 가깝고 고속도로와 인접한 입지조건으로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더욱 높음

[표 II-1] 경주국립공원의 연도별 탐방객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38,000	1,617,366	2,964,109	3,438,301	4,912,391	3,515,394	2,870,006	3,106,903

(* : 2004년부터 국립공원 무료 입장)(자료 : 국립공원 기본통계)

- 경주 국립공원 탐방객의 경우 5월 6월 시기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4] 경주국립공원의 월별 탐방객 수(2010년 기준)

□ 특화된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탐방객 만족도 증가

- 경주 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된 이후 실시된 공권 관리 및 탐방객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과 고객 서비스를 통해 2012년 기준 경주 국립공원의 탐방객 인지도는 79%로 크게 향상됨. 이는 과거 28%에 거치던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임
- 도립공원의 경우 예산과 관리 인력 부족으로 국립공원처럼 프로그램의 진행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 다만 규모와 예산에 맞춰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탐방객의 만족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높은 고객 만족도의 경우 재방문율을 높임과 동시에 구매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결과적으로 관련 시군의 관광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2) 공원지정의 부정적 영향

□ 규제에 따른 민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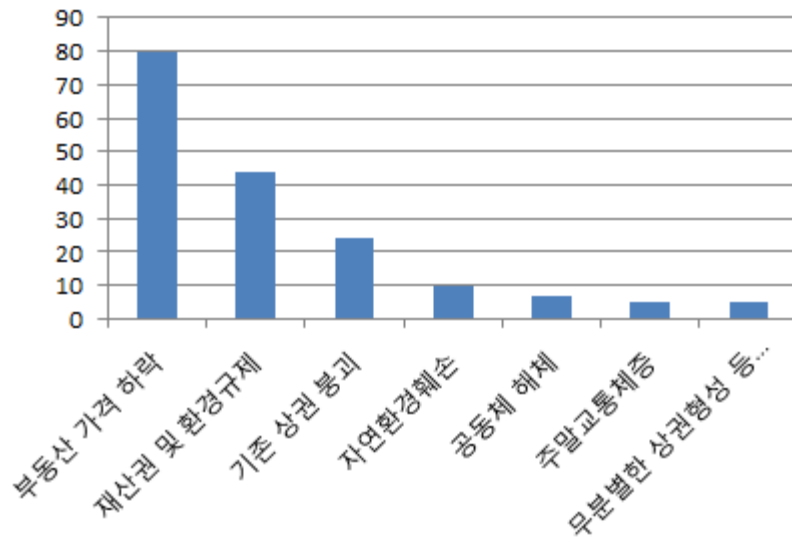
- 조사결과 국립공원 지역 내 거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허가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이 가장 높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음. 2003년에서 2008년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에서도 인허가 부분에 가장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 내 도립공원 주변 거주 주민들의 경우도 많은 생활의 불편과 더불어 인허가 분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표 II-2] 국립공원 거주민 간담회 의견(불편사항) 수렴 결과(2008, KEI)

구분		의견	
		건수	%
공원계획 분야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관련	90	14.1
	도로 및 탐방로 개설	25	3.9
	공원시설의 설치	6	0.9
	공원기본계획	1	0.2
	소계	122	19.1
인허가분야	임산물 관련	22	3.5
	건축물 관련	40	6.3
	시설물 관련	6	0.9
	가설물 관련	16	2.5
	상업시설 관련	17	2.7
	행위허가 기타	36	5.7
	소계	137	21.5
계도 및 단속분야	허용행위 완화	27	4.2
	단속관련	39	6.1
	소계	66	10.4
시설분야		103	16.1
주민지원사업		53	8.3
사유지매수		22	3.4
기타		134	21.0
합 계		637	100

□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편입된 부동산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음. 이와 더불어 재산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다음을 차지함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 및 손실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5] 부동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민인식

- 하지만 국립공원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실제 부동산 지가 하락이 있었다는 응답은 22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90%는 없었다는 응답이 있었음
-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국립공원의 경우 산악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적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부동산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민원에도 귀기우려야 할 것임

[표 II-3] 국립공원 거주 주택 가격 변동여부(2013. KEI)

가격 변동 여부		응답자수 (N=22)	
있었다	상승했다	2	1
	하락했다		1
없었다		20	

3) 공원관리의 문제점

□ 지자체의 관리 예산 부담 및 낮은 관리 효율성

- 도립공원의 관리는 담당 공무원 1인 관리 체계이므로 관리 효율성이 매우 낮음. 예로 과거 경주시의 경우 1987년부터 정부 예산지원 없이 경주시 담당공무원 1인이 138.7km² 면적의 국립공원을 관리하였으며 이는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이후 환경부 이관의 계기가 되었음
- 탐방 프로그램 운영, 청소 업무를 비롯한 시설 관리 등 제반 경비를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표 II-4] 경주 국립공원 연도별 청소작업 인원(단위 : 명)(자료 : 국립공원 백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	-	-	3,001	5,298	5,973	2008년 이후 관리공단으로 관리 업무 이관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원관리 필요성 제기

- 2008년 1월 이후로 경주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2013년까지 총 213억의 국비 예산이 투입되어 탐방로 개보수, 기반시설 확충, 복구 및 관리 체계 정립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음
- 생태, 역사, 시설 관련 전문 인력 70여명을 확보하여 위법 행위 단속, 탐방로 관리, 출입 통제, 탐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탐방객 서비스 강화 등 전문화된 공원관리를 시행중에 있음

- 문화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도립공원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공원 내 자연환경관리, 문화재관리 업무가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또한 지자체 내에서도 환경과와 문화재과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주민지원사업 및 복지 환경 필요성 제기

- 국립공원 지역 주민의 경우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에 반해 지원책의 경우 미비한 실정임. 국립공원 관련 예산이 운영예산과 비롯하여 시설 정비 및 설치,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임
- 또한 지자체의 복지 정책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한 주민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정책 집행 후순위로 밀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음. 실제 한 조사에서는 복지시설 부족이 생활불편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 최근 들어 기반시설에 편중된 예산과 달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은 대체로 30억 원 수준이며 2009년 상향되어 61억 수준이지만 이는 1개 국립공원당 2.9억에 불과한 실정임
-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등 인근 주민 지원에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예산 증액이 요구됨

- 국립공원보다 예산상, 인력상 구축적인 한계를 지닌 도립공원의 경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자원(자연, 역사문화, 지역농산물, 주민 등)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토대로 경제 활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공원 지정, 관리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공원 내 거주민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

- 공원 내 거주민에 대한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하였음
- 공통적인 사항으로 공원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편을 많이 제기하고 있음
- 생활불편과 더불어 낮은 수익에 대한 불만 제기하는 반면 실제 공원지역 해제시 지가 상승이나 수입의 상승은 미비하며 대신 생물종다양성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하였음
- 공원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물자원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필요
- 생성된 정보는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하며 보호지역 관리 계획 수립, 의사결정, 사업시행 등에 주민 참여
- 정기적 교육 및 주민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익 창출 및 지원을 제도, 법 마련 필요

2) 도립공원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 도립공원 관리 체계의 대한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었으며 경기도(2010)에 의한 연구가 있었음
- 공원관리 조직이 왜소함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 주체의 다양화로 인해 부실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현실에 부합한 관리 주체의 다양화 필요하며 민간 위탁, 공원관리소와 같은 조직신설, 국립공원일괄 관리 등의 대안 제시되고 있음
- 또한 공원 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이용 및 개발 고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3) 공원 해제와 지역사회

- 공원 해제지역의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은 오히려 공원 거주 주민보다 적게 나타났음
- 이는 공원 거주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보다는 공원 지정에 따른 경제 수입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5] 보호지역 지정 지역과 해제지역 주민의 재정 평균액(출처 : KEI 2012)

구분	보호지역(n=298)		해제지역(n=1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가구소득	285.5	433.8	187.5	177.1
월평균 생활비	163.2	124.0	124.6	120.0
월평균 저축액	79.0	93.0	36.9	71.4

- 또한 본인의 경제력에 대한 의사 설문조사에서도 해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본인의 경제수준에 대해 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6]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 여부(출처 : KEI 2012)

구분		보호지역(n=298)		해제지역(n=118)	
변동 있었다	상승했다	89(29.9)	43(48.3)	40(33.9)	21(52.5)
	하락했다		46(51.7)		19(47.5)
없었다					

- 공원 해제에 따른 생활만족도 분석에서도 공원해제 이후 오히려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특히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 여가활동에서 감소하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음

[표 II-7] 보호지역 해제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 리커드 척도(출처 : KEI 2012)

구분	보호지역(n=298)		보호지역(n=1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여가생활	2.9	0.9	2.7	1.0
편의시설	2.7	0.9	2.5	1.0
생업시설	2.8	0.8	2.6	1.0
교통시설	2.8	1.0	2.9	1.0
취업기회	2.4	0.9	2.3	0.9
주거환경	3.0	0.8	2.8	1.0
공동체 활동	2.6	1.2	3.0	1.1

(1점: 매우불만, 3점: 보통, 5점: 매우만족)

4) 종합검토

-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공원 지역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등 인근주민 지원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예산 증액이 요구됨
- 공원 및 보호구역 해제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해제에 대한 큰 긍정적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원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자원의 관리를 가치 증대, 그리고 자원을 활용한 경제수익 창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충남 도내 지정 관광(단)지 27개 이중 조성 완료된 곳은 3곳뿐으로 시설지구에 대한 관광지 개발시 여건분석과 관광객 선호도 조사, 시장경기상황 및 관광유행 검토 등 심도 깊은 고찰이 요구됨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례

III.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례

1. 생태관광 및 에코뮤지엄과 지역사회

1) 생태관광 및 에코뮤지엄의 정의

가. 생태관광의 정의

□ 생태관광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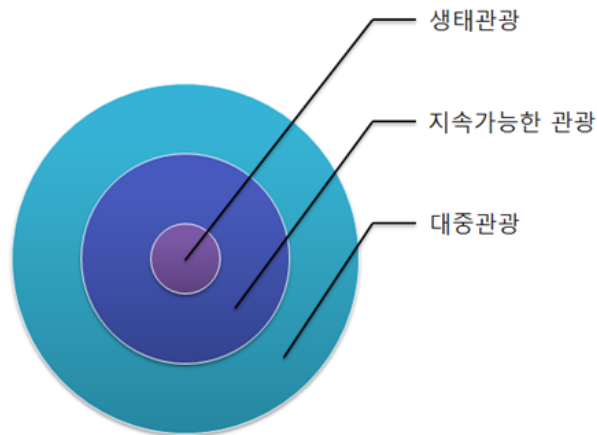
- 생태관광(Ecotourism)이라는 용어는 멕시코의 생태학자인 Hetzer에 의해 처음 사용됨
- 1980년대 중반부터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파괴되는 생물서식지를 위해 지키기 위해 창안되었음
- 환경보전과 지역 경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며 관광의 지속성을 위해 환경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함

□ 생태관광의 정의

- 생태관광은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일반 대중관광이 지닌 단점 중 하나인 자원의 고갈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임
-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제시되는 대안관광, 착한관광의 범주 내에 속함

-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관광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연보전과 지역 경제의 순환 체계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대중관광과 구별됨
- 국제생태관광협회에서는 생태관광을 「자연자원의 보전이 지역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웰빙(well-being)에 공헌하는 책임감 있는 여행(WWF 1995),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즐기는 책임감 있는 여행이자 방문이며 보전을 촉진시키며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인해 지역 경제에 이익을 제공하는 여행(Ceballos-Lascurain 1996) 등으로 정의되며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이해하고 보전하는 책임감 있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에 기초한 국내 환경부의 생태관광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현명한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본 환경성에서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이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과 동시에 대상이 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보전에 책임을 가지는 관광」으로 정의하며 생태와 문화의 보전을 함께 강조하고 있음



[그림 III-1] 생태관광의 범주

나. 에코뮤지엄의 정의

□ 의의

- 지방문화의 재확인과 중앙집권배제 사상을 기반으로 함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모델

□ 정의

- 생태학(ecology)과 박물관(museum)의 합성어임
- 인간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다루는 박물관이라는 의미
- 에코뮤지엄은 행정과 주민이 하나 되어 운영하며 행정은 전문가, 시설 및 자금을 제공하고 주민은 지식과 능력을 제공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

- 에코뮤지엄은 주민이 생활하는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방문객에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임
- 인간은 자연과 함께 생활하여 왔으며 이를 이해하는 공간이 에코뮤지엄임
- 에코뮤지엄은 걷거나 체험이 가능한 혜택 받은 공간임
- 에코뮤지엄은 외부연구기관과 협력해가면서 지역연구에 공헌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연구소’임
- 에코뮤지엄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보전기관’ 임
- 에코뮤지엄은 지역연구나 지역유산의 보호활동에 주민참가를 촉진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학교’임

□ 현황

- 196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프랑스에는 50여개가 넘는 에코뮤지엄이 운영되고 있음
-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에 보급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일본의 경우 ‘마을(지역)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음

2) 생태관광과 지역사회

가. 생태관광의 직접적인 영향

□ 지역자연환경의 보전

- 자연환경보전 기금이 증대되고 생태관광 이용자 및 가이드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 효과
- 인해 문제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 상품 가치의 증대를 위해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사업 및 복원사업으로 추진으로 자연환경이 직접적으로 보전되는 효과가 있음

□ 지역 경제 활성화

- 호주 케언즈 지역의 경우 생태관광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는 3~5조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 내국 관광수요 증대에 따라 25,000여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함. 더불어 인접 지역의 수익 또한 증대되었음
- 필리핀, 페루 지역의 생태관광 운영 사례에 의하면 가계 소득이 각각 20%, 27%가 증가하였음(Kiss 2004).
- 우수한 자연자원을 지닌 일부 국가의 경우 생태관광이 국민 총생산(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외화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특히 국제적으로 많은 탐조객이 찾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경우 생태관광을 통해 외화획득 비율이 18.4%에 달하며 이에 의한 고용효과는 6.3%에 이릅니다

[표 III-1]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WTTC 2001)

구분	GDP대비비율(%)	외화획득비율(%)	고용효과(%)
코스타리카	7.9	18.4	6.3
토바코	4.1	17.8	2.0
보츠와나	3.5	8.5	4.5
케냐	4.3	17.9	3.3
네팔	4.5	19.7	4.9
뉴질랜드	6.0	15.0	6.1

□ 지역사회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의 수익 증대와 더불어 주민의 참여로 인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으로 이어지게 됨
- 건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심미적, 심리적으로 부유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음

나. 생태관광의 간접적인 영향

□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

- 생태관광 운영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증진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의 매개 상품, 즉 자원으로써 가치로 인해 지역의 자연보호 및 복원 사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음

□ 간접 고용 효과

- 경제 수익의 직접적 효과 의 몇 배에 이르는 간접 수익과 더불어 고용효과가 발생함
- 또한 늘어난 생태관광 이용객에 의한 대중관광 수요 증가와 더불어 문화, 역사 관광도 함께 촉진되는 간접효과가 발생함

□ 인구증가

- 소득 증대와 안정된 사회로 인해 외부로부터 생태관광 사업 활동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지역사회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표 III-2] 생태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Weaver, 2007)

구분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자연 환경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사업의 촉진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금의 증가 - 이용자 및 가이드에 의한 감시활동 증가	-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지역 경제	- 수익 증대 및 고용 효과 촉진 - 인접 지역의 경제적 수익 증대 기회 제공	- 직접적 효과의 몇 배에 이르는 간접적 수익 및 고용 증대 - 대중관광 및 문화, 역사 관광의 촉진
지역 사회	- 수익증대와 더불어 주민 참여 증가에 따른 지역 소속감 및 연대 강화 - 건강한 자연환경 속의 삶의 질 개선 -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정신적, 심미적 이익	- 경제 인력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2. 마을주변 에코뮤지엄 운영 사례

1) 일본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

□ 목표

- 마을 주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 마을 주민의 즐겁게 생활하는 생활스타일 확립

□ 컨셉 및 주요 프로그램

- ‘마을은 거대한 박물관’ ‘마을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컨셉으로 진행
- 지역 만들기 사업의 주된 사업임
- 지역산업을 소개하는 전시, 체험학습, 이벤트 등으로 구성됨

□ 개요

- 일본최초의 에코뮤지엄 시행된 곳임
- 인구 8,600여명의 산간지대에 위치한 고장으로 중심을 흐르는 하천과 비옥한 농경지가 발달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임
- 명승지와 고택 등 문화적 자원도 함께 풍부함

□ 추진 계기

- 마을의 자연을 보전하고 공생하기 위한 관광지를 만드는 목표로 출발하였음
- 1988년 마을 자체적으로 ‘아사히자연관’을 건립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산촌마을 사업을 운영함

- 주민 스스로가 관여하여 함께 운영하는 자연중심의 테마가 주된 프로그램임
- 풍부한 자연과 공기에 대한 감사를 담은 ‘공기신사(空氣神社)’가 유명하며 밤나무숲 가운데 거울을 설치하여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 풍경과 함께 공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한층 더 깊게 느끼게 함
- ‘지구와 친한 마을’을 선언하고 이후 6월 5일을 ‘공기의 날’을 제정함
- 여름에는 밤나무 숲의 자연을 체험하는 캠핑장, 겨울에는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탐방객이 많이 찾음

2) 스웨덴 베르그슬라겐 에코뮤지엄

□ 주요 프로그램

- 철광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 관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과거 시설을 현지 보전하고 현장 내에서 관람하는 프로그램 운영

□ 개요

- 과거 철광산업의 주요 재원으로 물이 필요하였으므로 호수 주변에 많은 관련 시설이 배치하였음
- 호수를 중심으로 인근의 7개 지자체가 참여, 운영되고 있음

- 19세기말 철광 산업이 발달하였던 지역적 특색을 살려 과거 철광석의 채굴, 운반, 제련, 철제기구의 제작 과정을 엮은 하나의 컨셉으로 진행됨
- 철광 산업시설을 현지내 보존하고 탐방객이 지역을 돌며 철광산업의 모든 과정과 관련한 시설을 토대로 관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1600년대의 집과 대장간, 1900년대의 사무실, 1750년대 인부 기숙사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음
- 매년 8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실제 용광료와 대장간 등을 재현, 운영함
- 지자체의 행정 지원, 사업초기 자원조사 진행을 제외하고는 600여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3) 스웨덴 크리스티안 스타트 에코뮤지엄

□ 주요 프로그램

- 습지 및 연안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류, 조류, 양서파충류, 식물 등 습지 및 연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개요

- 도시 전체가 생태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과거 1960년대까지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던 습지를 복원하고 보전하여 2005년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철광석 채광지



제련소(세계문화유산지정)



대장간(세계문화유산지정)



대장간 내부

[그림 Ⅲ-2] 베르그슬라겐 에코뮤지엄 관련 자원

- 지속가능발전의 모델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보전, 발전, 지원 등 3개의 키워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연보호, 이용 및 관광, 연구 및 교육 등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

- 습지대, 숲, 농경지, 해안, 담수, 침수지역 등 총 10여개의 테마로 에코뮤지엄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
- 검은목두루미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한곳으로 유인한 뒤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되어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음
- 비지터센터에는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홍대대사를 포함한 130여명의 자원봉사가 함께 활동하고 있음



비지터센터 전경

실내 교육 모습



연안 초지대 생태 안내판

습지 전경

[그림 Ⅲ-3] 크리스티안 스타트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현장

4) 부산 감천문화마을

□ 개요

-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주민공동체의 자발적인 운영과 실제 마을 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보존하고 소개한다는 점에서 ‘에코뮤지엄’의 정의와 일치함
- 지역민 스스로에 의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창출이라는 좋은 사업의 사례지로 각광받고 있음

□ 역사

- 1950년대에 태극도 신자들과 6. 25 난민들을 기반으로 한 집단촌이 감천동의 기원이다. 달동네, 빈민촌의 이미지를 넘어 이제는 문화마을로 자리 잡고 있음
-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을 원형보존하고 마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마을재생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그림 III-4] 감천마을 옛사진(출처 : 감천마을 홈페이지)



[그림 III-5] 궁중목욕탕을 리모델링한 한림(출처 : 김천마을 홈페이지)



[그림 III-6] 김천마을 현재모습(출처 : 김천마을 홈페이지)

□ 주요 프로그램

- 미로와 같은 좁은 길을 통해 다채롭게 색칠된 경사진 마을 다니는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임
- 특히 입주한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카페, 게스트하우스, 분식점 등 다양한 공간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음
- 연간 3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 공간에서 함께 관람하고 체험함

3. 공원 지역 생태관광 운영 사례

1) 호주 케언즈 쿠란다 마을

□ 쿠란다 마을 개요

- 호주 원주민 중 하나인 차푸카이(Tjapukai) 족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마을로 현재 6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 마을은 약1만여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19세기 말부터 유럽인들에 의해 개척되었음
- 마을 주변의 열대우림지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에게 차푸카이 족의 전통 생활양식과 음악과 춤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전통문화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음

- 그 외 쿠란다 마을에는 전통공예품을 파는 상점과 함께 야생 새공원, 코알라공원, 소규모의 야생동물원, 나비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
- 쿠란다 마을에서는 창던지기와 전통 악기를 관람하며 부메랑던지기를 직접 체험 가능



차푸카이족의 창던지기 시범



차푸카이족의 전통춤 공연

[그림 III-7] 쿠란다 마을 체험 사진

□ 주요 운영 프로그램

- 쿠란다 관광기차
 - 지금의 관광기차는 쿠란다 마을의 광물 채취와 목재 생산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1887년에 착공하여 1891년에 완공
 - 전체 운행길이는 75.1km이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327m의 높이를 오름
 - 프레쉬워터 역(freshwater station)을 출발하여 도착역인 쿠란다 역 까지 총 1시간 45분이 소요
 - 15개의 굴과 37개의 다리 그리고 98번 급회전

- 광업과 임업에 대한 채산성이 줄어들자 1930년대부터 관광 열차로 이용되기 시작



프레쉬워터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기차 내부 모습



다리를 지나는 기차



종착역인 쿤두역



바런폭포 감상 위해 잠시 정차



바런폭포 주변 협곡

[그림 III-8] 쿠란다 관광기차

○ 열대우림체험

- 쿠란다 열대우림지는 1988년에 'Wet Tropics of Queensland World Heritage'라는 공식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
- 면적은 90만ha로 호주 전체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3,000여종의 가까운 식물과 함께 나무캥거루, 화식조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
- 열대우림체험은 수륙양용차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가이드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정해진 코스를 정차와 이동을 반복하며 열대우림 내 다양한 생물에 대해 설명
- 탐방객이 직접 도보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하고 수륙양용차 또한 정해진 코스만을 돌기 때문에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더라도 이들에 의한 훼손을 사전에 차단 가능



열대우림 내 습지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차 열대우림을 설명하는 가이드와 탐방객

[그림 Ⅲ-9] 열대우림 체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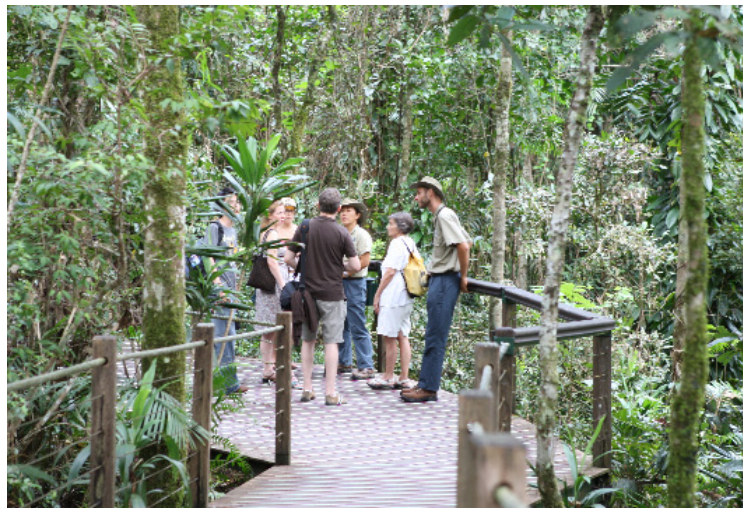
○ 스카이라일(Sky Rail)

- 스카이라일은 그린글로브(Green Globe)가 인증한 세계 최초의 관광 상품이며 호주 내에서도 생태관광 인증을 받은 첫 번째 상품일 뿐 아니라 환경경영인증(ISO14001)도 획득
- 소득의 분배를 위해 자금을 조성하여 스카이라일 열대우림 재단(Skyrail rainforest foundation)을 설립하고 열대우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길이는 7.5km에 달하며 출발지에서 종착역까지의 운행시간 또한 1시간 30분소요
- 바런협곡국립공원 내의 광활한 원시 자연열대우림의 상공을 지나며 다양한 식생을 목격 가능
- 1995년에 완공하였고, 약 일 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되었으며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모든 철탑은 헬기로 공수하였는데 가장 긴 철탑의 높이는 40m 정도
- 승강기는 총 114대가 운행되며 중간에 레드피크역(red peak)과 바런폭포역(barron fall) 두 곳의 정거장에서 체류
- 레드피크역의 경우 해발 545m에 위치하며, 역 주변으로 열대우림을 거닐며 체험할 수 있는 175m 길이의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 레인저들이 생태해설 진행
- 바런폭포역의 경우 해설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열대우림에 관한 전시와 해설이 진행
- 또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는 생태해설가의 설명도 열대우림 내에서 직접들을 수 있음
- 탐방로와 함께 바런협곡과 폭포와 같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파고라 등이 설치되어 있음

- 탐방객에게 환경에 대해 폭넓은 체험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보전과 교육활동 지원
- 초기엔 국립공원과 자연유산 지역에 초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 존재
- 그러나 많은 긍정적인 면을 통해 지금은 최고의 생태관광 상품으로 인정



열대우림 상공을 지나는 스카이라일



열대우림 내에서 설명하는 레인저

[그림 Ⅲ-10] 스카이라일 체험 사진

2) 모턴섬(Moreton Island) 생태관광 운영

□ 개요

- 퀸즈랜드 주의 수도인 브리즈번에서 북동쪽으로 58km 위치한 모래섬으로 면적은 170km²임
-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래섬으로 섬 전체의 95%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 섬 주변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많은 고래가 찾아와 서식하는 관계로 포경의 전초기지로 이용되었음
- 실제 1952년부터 1962년까지 총 6,277마리의 혹등고래가 포획되었다고 함
- 포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고래관찰관광과 캠핑, 사막사파리 투어를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며, 특히 돌고래 먹이주기 체험으로 유명한 곳임
- 일부 요트를 소유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섬을 찾는 것을 제외하고 섬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탕갈루마 리조트에서 투숙객이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음
- 모턴섬을 가기 위해서는 브리즈번의 핀켄바(Pinkenba)항에서 페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함

□ 주요 프로그램

- 탕갈루마리조트는 생태체험과 휴양, 액티비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 프로그램은 주간과 야간 그리고 요일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음
- 생태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음
 - 사막사파리
 - 다양한 해양스포츠
 - 쿼드바이크
 - 헬리콥터 투어
 - 돌고래먹이주기체험
 - 고래관찰크루즈
 - 듀우공관찰크루즈
 - 야간생태탐험(night spotlight eco walk)
 - 해양생물크루즈(marine discovery cruise)
 - 어린이를 위한 해양생물 강의(eco kids)
 - 물고기 먹이주기(fishing feeding)
 - 펠리칸먹이주기
 - 난파선 스노우클링
 - 모턴섬에 사는 희귀조류인 쿠카부라 먹이주기(kookaburra feeding) 등
-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영어, 일어,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된 안내책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도 상주함



돌고래 먹이주기 체험



항구에서 페리를 기다리는 관광객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고 보관하던 창고



섬의 곳곳에 위치한 자연보호용 안내판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난파선



펠리칸 먹이 주기

[그림 Ⅲ-11] 모텐섬 체험 사진



4

현장조사 및 결과

IV. 현장조사 및 결과

1. 대둔산 도립공원

□ 조사일

○ 2015. 7. 15

□ 현장조사 내용

- 대둔산 케이블카는 1991년 11월 첫 개통을 함
- 케이블카는 매시 20분 간격으로 운행
- 정원 51명, 소요시간은 약 6분, 주행거리는 편도 927m, 초속 4m의 속도로 운행함



[그림 IV-1] 대둔산케이블카 케이블 제원 설명

-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의 60~70%가 완주군을 통해서 입산
- 수락계곡의 입장객은 하루 2,000명 정도
- 연 이용객은 60여만 명 정도이며 60%가 가을철에 집중됨

- 주차장의 경우 700대가 동시주차 가능하지만 성수기에는 하루 3,000대가 집중되므로 인근 도로까지 주차됨
- 총 9명이 관리를 하며 주차비 수입은 1.4억 정도 징수됨
- 케이블카운영사업은 운영비, 관리비 등을 고려할 경우 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음



[그림 IV-2] 대둔산 케이블카 현장 조사 모습

2. 대관령 하늘목장

□ 조사일

○ 2015. 10. 30

□ 현장조사 내용

- 한일시멘트 계열사인 한일산업에서 1974년 목장을 조성하였으며 젓소농장을 시작으로 지금은 소, 말, 양 등을 방목 사육하고 있음
- 여의도의 4배 크기로 조성되어있으며 젓소의 경우 하루 4,000리터를 착유하고 있음
- 대관령에는 총 49개의 풍력발전용 풍차가 있으며 하늘목장 내에는 29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강원풍력화사에 운영함
- 목장의 '하늘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에 개장한 것은 1년 정도 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트랙터를 타고 정상(1,100m 선자령) 까지 이동하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며 승마체험도 가능
- 하루 관광객은 2,000여명정도이며 여름성수기에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함
- 웰컴투 동막골 촬영 이후 탐방객수가 늘었다고 함

[표 IV-1] 대관령 지역 목장투어 장소 및 주요 탐방 수단

구분	삼양목장	하늘목장	양떼목장
소유	삼양사	한일산업	개인
탐방(이동)수단	버스	트랙터	도보
주요 프로그램	방목지 산책 양떼, 소 방목지 타조 먹이주기	방목지 산책 트랙터마차 승마체험	방목지 산책 양떼 조망 먹이주기
입장료	대인: 8,000 소인 : 6,000	대인: 5,000 소인 : 4,000	대인: 4,000 소인 : 3,500



하늘목장 운송 수단인 트랙터



트랙터 내부 모습



선자령 내에 위치한 풍력발전기와 연구진

[그림 IV-3] 대관령 하늘목장

3. 설악산 시네라마

□ 조사일

○ 2015. 10. 31

□ 현장조사 내용

- 한화에서 직접운영하며 3~4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상황에 따라 증원되기도 함
- 수학여행철, 여름휴가, 단풍시절에 성수기
- 드라마 상영 당시에는 수십만 명이 찾았으나 올해는 8~9만 명 입장 예상
- 관광객 입장객수는 줄어드는 추세임
- 시설 낡은 대신 리모델링 비용 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탐방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테마별로 다양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성곽, 저잣거리, 마을, 황궁 등으로 나뉘어져 있음
- 대조영을 비롯한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되었음
- 부여, 문경, 보은 등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드라마 세트장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임



황궁 주변에 조성된 연못



내부 전시실에서 토의 중인 연구진



황궁을 둘러보는 연구진



서민 마을

[그림 IV-4] 설악산 시네라마

4. 월악산국립공원(닷돈재 야영장)

□ 조사일

○ 2015. 10. 31

□ 현장조사 내용

- 만수봉 탐방로 700m 길이로 조성
- 15년 전부터 야영장 운영
- 국내에서는 한해 300만 명 캠핑인구 추정

- 국립공원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 2013년 개장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담양, 덕유산에서도 실시함. 물품대여 글램핑을 원하므로 캠핑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대여함
- 대체로 산막 이용률 또한 높은 편이며 아이들은 캐라반, 일반인은 산막 선호함
- 수익은 산막과 캐라반이 높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편익은 일반야영장의 수익이 높음
- 글램핑과 산막은 유지관리비가 많이들고 최근 3년간 2명의 질식사고 발생해서 안전사고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전기를 많이 원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전기시설 공급
- 캐라반, 산막 1일 대여료 5만원
- 운영 및 관리자는 총 7명이며 성수기에는 증원함
- 연간 40만 명이 야영장을 이용하며 겨울철 평일을 제외하곤 예약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인기가 매우 높음
- 겨울에도 운영을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자 상주할 것을 권고함



월악산국립공원 가이드의 안내를 듣는 연구진



물품 대여소 내부



월악산국립공원 캠핑존



연구진과 가이드가 함께한 기념촬영

[그림 IV-5] 월악산국립공원(달동재 야영장)

5. 현장조사 결과 시사점

[표 IV-2] 현장조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조사지	주요 내용	시사점
대둔산도립공원	- 시설유지관리비 부담	- 과도한 시설 자체
대관령 하늘목장	- 트랙터 이용이라는 소재 -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의 다각화	- 기존 자원 활용한 수익의 다각화 아이디어 발상 필요
설악산 시네라마	- 탐방객 감소와 낡은 시설	- 관광의 유행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예측 필요
월악산국립공원	- 유지관리비 문제로 캐라반, 산막보 다는 야영장이 수익 편익이 좋음	- 시설 보다는 구체적 프로 그램 필요



5

충남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전략 구상

V. 충남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전략 구상

1. 도립공원 SWOT 분석

1)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충남 핵심보전구간으로 자연환경 뿐 만 아니라 경관적으로 우수함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각 지역별 특색과 인지도가 높은 편임

☐ 약점(WEAKNESS)

- 지자체의 여건(재정 약화, 전문 인력 부족 등)상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사회적 공익적 가치와는 별도로 지역에서는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기회(OPPORTUNITY)

- 사회적으로 레저, 자연복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공공재 보전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가 과거 보다 높아지고 있음

□ 위협(THREAT)

- 생활불편, 재산권 침해 등의 요인으로 지역 내에 공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높아지고 있음
- 공익 가치를 위한 재산권 침해의 위험 소지가 있으며 정부 권력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매입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어려운 상황이며 해제할 경우 자연 건강성 훼손이 우려됨

2) 도출 전략

- 도립공원의 자원화를 통한 생태관광 및 에코뮤지엄 활성화
- 자연복지 및 자연활동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수익 창출
- 공원관리 계획 수립 및 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이를 통한 공원 내 자연자원의 건강성과 지속성 증대
- 사회적 비용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2. 도립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 외부자본과 재원을 배제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 지역의 자원(자연자원, 인적자원)을 활용한 계획의 경우 자본의 유출과 자원의 고갈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이익의 지역 내 재분배될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

□ 시설은 자세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추진

- 시설 위주의 사업의 경우 관리비 및 운영비의 부담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수익의 비중이 낮아짐
- 관광 소비 시장의 경우 유행과 흐름이 변하고 무엇보다 시설의 경우 감가상각비로 인한 향후 매몰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 추진이 바람직함

□ 지역민의 수익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주민 및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수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 따라서 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지역민의 참여가 우선시 됨

3. 도립공원 및 지역경계 활성화 전략

□ 도립공원 자원성 평가

- 도립공원 자원성 평가를 통한 공원 경계 등 구역 수정, 보완
- 도립공원 관리 기반 마련

□ 도립공원 관리 계획 수립

- 도립공원 관리 체계 개선 및 효율성 확보
- 자연자원의 보호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건강성 확보

□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및 공개

- 도립공원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도립공원 자원화 추진

- 도립공원 내 자원 조사(생태, 문화, 역사 등) 실시
- 지역의 역사 문화를 고려한 생태관광,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개발

□ 주민 지원책 마련

- 공원 내 거주 주민과 상시 대화창 마련
- 공원관리 내용을 관련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공원의 해제보다는 주민생활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자금 확보
- 도립공원 관리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일자리 마련

〈참고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 2014. 국립공원, 바로알기.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2011. 국립공원 기본통계. 국립공원
- 박용하, 전성우, 엄정희, 홍현정, 최현아, 변병설. 2012. 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오동하, 여운상. 2014.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서산시. 2011. 천수만생태관광기본계획. 서산시
- 환경부. 2008.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환경부
- 한상겸, 이용일. 2010. 한국 주요 생태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 22(1): 79-99.
- David Weaver. 2008. Ecotourism. Wiley.
- Carl Patterson. 2007. The business of ecotourism. Della & Mark